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

-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pa 한국전파진흥원

이 보고서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경기대학교
책임연구자 : 이 호 영 (경기대 교수)
공동연구자 : 윤 성 옥 (경기대 강사)
보조연구자 : 김 세 환 (성균관대 박사과정)
김 한 (성균관대 석사과정)

목 차

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 5

2. 연구목적 ····· 7

3. 연구방법 ····· 9
   1) 분석대상 ····· 9
   2) 분석방법 ····· 9
   3) 분석내용 ····· 10

4. 보고서 구성 ····· 10

제2장 올림픽 중계방송과 시청자 권리보호

1. 미디어스포츠의 등장 ····· 11
   1) 미디어스포츠의 개념 ····· 11
   2)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작용 ····· 12

2. 올림픽과 방송 ····· 13
   1) 올림픽 방송의 전개 ····· 13
   2) 올림픽 방송과 TV중계권 ····· 15
   3) 올림픽 중계권료의 급등 ····· 16

3. 올림픽 방송과 보편적 시청권 ····· 19
   1) 스포츠 방송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 ····· 19
   2) 보편적 시청권의 해외 사례 ····· 21

4. 국내에서 스포츠와 시청권 보호 ····· 25
   1) KP(Korea Pool)의 운영과 파행 ····· 25
   2) 국내 보편적 시청권 도입 논의 ····· 28
   3) 방송법에서 시청자 권리 보호 조항 ····· 29

제3장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

1. 올림픽과 방송편성 ····· 33
   1) 방송편성의 원칙과 목적 ····· 33
   2) 스포츠 방송편성의 특성 ····· 34

2.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미치는 요인 ····· 36
   1) 외적 조건 ····· 37
   2) 내적 조건 : 방송경영 ····· 44

3. 국내 방송사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의 문제점 ····· 48

4. 해외 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 50
   1) 일본의 스포츠방송 ····· 50
   2) 재팬컨소시엄(JC)과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 53

제4장 국내 방송사의 베이징 올림픽 편성 분석

1. 분석방법 ····· 60

2.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현황 ····· 61
   1) 일반 현황 ····· 61
   2) 종목별 편성현황 ····· 62
   3) 한국 관련성 편성현황 ····· 66
   4) 경기종류별 편성현황 ····· 72
   5) 방송 종류별 편성현황 ····· 75
   6) 성별 편성현황 ····· 76

3.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중복편성 현황 ····· 79
   1) 일반 중복편성 현황 ····· 79
   2) 종목별 중복편성 현황 ····· 80
   3) 한국 관련 중복편성 현황 ····· 83
   4) 경기종류별 중복편성 현황 ····· 86

제5장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 91
   1)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일반편성 현황 ····· 91
   2)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중복편성 현황 ····· 94

2. 정책 제언 ····· 95

참고문헌 ····· 101

표 목 차

<표 2-1> 역대 올림픽의 중계권 ····· 17
<표 2-2> 해외 각국의 보편적 시청권 비교 ····· 24
<표 2-3> 지상파 3사 간 KP 파기 사례 ····· 27
<표 3-1> 올림픽 기간 내 전국 시청률 상위 20개 ····· 43
<표 3-2>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지상파방송 3사 예산 내역 ····· 48
<표 3-3> 2004 아테네 올림픽 한국 관련 편성시간 ····· 49
<표 3-4> 일본의 TV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상품화 관계연표 ····· 52
<표 3-5> 일본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 56
<표 4-1>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빈도 및 시간 ····· 61
<표 4-2>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빈도순) ····· 63
<표 4-3>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시간순) ····· 64
<표 4-4> 지상파 3사의 종목별 편성 순위 ····· 66
<표 4-5> 지상파 3사의 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 67
<표 4-6> 지상파 3사의 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 68
<표 4-7> 지상파 3사의 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 69
<표 4-8> 지상파 3사의 비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 70
<표 4-9> 지상파 3사의 비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 71
<표 4-10>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 편성빈도 ····· 72
<표 4-11>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 편성시간 ····· 73
<표 4-12>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 편성빈도 ····· 74
<표 4-13>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 편성시간 ····· 75
<표 4-14> 지상파 3사의 방송종류별 올림픽 중계 편성 ····· 75
<표 4-15> 지상파 3사의 성별 올림픽 중계 편성 ····· 76
<표 4-16> 지상파 3사의 남성별 올림픽 중계 종목편성 ····· 77
<표 4-17> 지상파 3사의 여성별 올림픽 중계 종목편성 ····· 78

<표 4-18>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비교 ····· 79
<표 4-19> 지상파 3사의 채널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 80
<표 4-20>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 81
<표 4-21>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 ····· 82
<표 4-22> 지상파 3사의 종목별 비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 84
<표 4-23> 지상파 3사의 종목별 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빈도수 상위10대 종목) ····· 85
<표 4-24>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비메달관련) ····· 86
<표 4-25>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 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메달관련) ····· 87
<표 4-26>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비메달관련) ····· 88
<표 4-27>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 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메달관련) ····· 90

그 림 목 차

<그림 3-1> 미국 내 올림픽 평균 시청률 ····· 41
<그림 3-2> 지상파 3사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시청률 추이 ····· 42

요 약 문

1. 연구목적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같은 문화권인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어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감, 시차 문제 극복 등 여러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음.

○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시청률의 기대 수준이 높고 스포츠 마케팅 관심이 고조된 만큼 경쟁은 과열되기 마련인데 올림픽에 있어 미디어 간 과열 경쟁은 곧잘 편성의 다양성, 시청자의 볼 권리 등 스포츠 중계방송의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곤 함.

○ 국내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빅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중계방송에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해왔으며 방송편성의 다양성, 시청자들의 채널 및 프로그램 선택권 제약, 중복편성 등 전파낭비가 지적되었음.

○ 그러나 올림픽 때마다 중계방송의 중복편성 문제에 대해 여러 비판은 많았지만 대개 인상비평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분석이라는 통계학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목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이 어떤 종목과 경기에서 얼마나 채널 간 중복편성이 되었는지 등 중계방송의 중복편성을 분석하고자 했음.

○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 분석은 향후 올림픽 중복편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실증 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베이징 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 때마다 지속적인 편성분석의 자료가 수십 년 간 축적된다면 국내 올림픽 방송의 통시적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임.

2. 연구범위

○ 올림픽 중계방송과 시청자 권리 보호 논의
○ 올림픽과 중계방송 편성과 편성요인 제시
○ 해외 사례 제시(일본을 중심으로)
○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
○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3. 연구결과

○ 올림픽 기간 내내 국내 지상파방송 3사가 동일하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올림픽 중계방송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분석기간 동안 지상파방송 3사의 중계방송 시간은 총 25,536분(814건)이었음. 이는 방송사별 일일 평균 7~8시간 올림픽 중계방송을 편성했다는 의미임.

○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중계방송이 지나치게 인기위주의 종목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편성빈도별로 유도, 수영, 육상, 양궁, 핸드볼, 탁구, 야구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편성시간별로는 야구, 탁구, 핸드볼, 양궁, 수영, 육상, 축구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 금메달 위주의 경기만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음. 메달 관련성 중복편성 시간을 살펴보면 메달과 관련이 있는 경기는 12,299분(48.1%), 메달과 관련이 없는 경기는 11,957분(46.8%)을 차지하였음.

○ 국내 지상파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국수주의 경향이 두드러짐. 지상파 3사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 814건 중 한국 관련 방송 편성은 654건으로 전체 베이징 올림픽 중계의 80.3%를 차지했음. 편성시간으로는 한국 관련 경기 21,774분(85.3%), 한국과 관련 없는 경기 3,762분(14.7%)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은 물론 어떤 채널의 경우 90%인 경우도 발견되었음.

○ 올림픽 중계방송에 있어 성적 차별성이나 선정성이 엿보이는 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전체 편성 건수에서는 남성, 여성 간 특징을 발견하기는 힘들었지만 한국과 관련 없는 종목을 편성할 때 수중발레, 비치발레, 다이빙의 선택이 눈에 띄었음. 특

히 비치발리나 다이빙의 중계방송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 경기가 비율이 높았음.

○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중복편성 시간은 14,112분(55.2%)이었고 단일편성은 11,424분(44.8%)이었음. 이러한 중복편성 시간에는 2개 채널 중복편성과 3개 채널 중복편성이 합해진 수치임.

○ 중복편성 분석에서 3개 채널 중복편성 건수는 총 78건 중 KBS2- MBC-SBS 69건(2,853분), KBS1-MBC-SBS 9건(671분)으로 나타났음. 2채널 중복편성 건수는 총 87건(1,770분) 중 MBC-SBS는 31건(787분), KBS2-MBC는 29건(511분), KBS2-SBS는 22건(415분), KBS1-MBC의 중복편성은 5건(총 57분)으로 나타났음.

○ 종목별 중복편성 건수를 살펴보면, 양궁(20건), 탁구/핸드볼(18건씩), 유도(16건), 수영(13건) 순으로 나타났음.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에서는 야구(894분), 탁구(826분), 핸드볼(658분), 양궁(533분)순이었음.

○ 한국관련 중복편성에 있어서 KBS2-MBC-SBS의 중복편성으로 양궁(12건)이 가장 많이 중복편성 되었음. 그리고 편성시간으로는 KBS2-MBC-SBS의 야구(838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4. 정책 제언

○ 방송편성은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의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기관은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공표로 방송사가 자율 교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방송법 규정은 순차편성에 대한 권고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법 시행 후 첫 번째 치러진 올림픽이었음. 방송법 내 순차편성 관련 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권고조항이더라도 법률로써 정해진 조항이므로 방송사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음.

○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와 이를 공표함으로써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반복적인 문제점 노출과 개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은 경제 논리와 시장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무조건 방송사에 공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외부 조건을 개선해주는 방식이 중복편성이나 과다한 편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과다한 경비의 상당 부분은 급증하고 있는 고액의 중계권료이고 이는 IOC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업화와 무관하지 않음. 일본의 사례에 비춰 고액의 중계권료를 비롯해 국제 스포츠기구와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고 다시 중계방송 편성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국내 KP(Korea Pool) 운영의 정상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지상파방송의 채널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상파방송사들이 채널별 동일하게 중계방송을 하기보다는 각 채널별 이미지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여 차별화 편성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다매체 다채널 경쟁상황에서 전체 지상파방송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도 바람직함.

○ 획일적인 중계방송과 중복편성의 원인이 되는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획일적 중계방송 시스템에서 벗어나 KP 내 KBS, MBC, SBS 채널별로 방송사 이미지와 정체성에 맞는 종목을 배분하여 제작/취재/편성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중복편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임. 중복투자로 인한 지상파방송의 동반하락보다는 분산투자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 "올림픽은 대회 기간 내내 다른 모든 매스미디어를 정지에 가깝도록 느리게 만드는 텔레비전 괴수이다(Indeed, the Olympics are the only television behemoth that can make all other mass media slow to a near halt for weeks on end)"(Billings, 2008).

확실히 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인들이 텔레비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텔레비전이 올림픽을 먹고사는 것인지, 올림픽이 텔레비전을 먹고사는 것인지, 공생의 관계인지는 좀 더 고려해 볼 문제이겠지만 올림픽만큼 국가적, 나아가 전 세계적인 빅 스포츠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월드컵 축구도 국제적인 대형 미디어 이벤트로서 개최 기간 동안 국내 수십개의 채널과 미디어로 동시 중계방송을 하지만 그 어떤 대회보다 올림픽이야말로 지구상 최고의 대회로 인정받아 왔다. 와넬(Whannel)은 "올림픽은 최고의 미디어 페스티벌"이라 평가한 바 있으며, 하이스탠드(Heistand)도 "다른 어떤 스포츠 이벤트보다 올림픽과 함께 방송은 시청자들의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Whannel, 1984; Heistand, 2006). IOC에 따르면 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지도는 93%에 달하고, 응답자의 96%가 올림픽을 다른 경기들에 비해 더 재미있고 특별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에 있어 방송 산업은 전체 방송 역사보다 과거 10년 동안 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케이블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독점적이었던 무료 지상파방송 이외에 시청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었고 위성방송, DMB, 주문형 TV, 인터넷 방송, 디지털 녹화장치(DVR) 등은 시청자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했다. 증가하는 미디어 선택권과 포맷으로 시청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하루에 시청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Ayres, 2006). 스포츠 콘텐츠는 제한되어 있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은 날로 증가함으로써 결국 미디어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 종합 시청률은 한국, 일본 모두 10% 내에 있을 정도로 낮은 시청률을 보인 바 있다. 주요 경기가 새벽시간대 편성되는 등 시차에서 오는 중계방송의 한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때 국내 시청률이 30%였던 것에 비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개막식은 8%에 그쳤던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중계방송의 저조한 시청률 때문에 '올림픽 중계방송의 죽음'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이란 여전히 개최 기간 동안 국가적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중계방송으로 남아 있다(Billings, 2008).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국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중계방송되었다.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 개막식으로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은 전 세계 205개 국가에서 1만 5백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어느 올림픽 못지않게 국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같은 문화권인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어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감, 시차 문제 극복 등 여러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한 데 있다.

단기간 집중적인 노출효과가 필요한 광고주들에게도 베이징 올림픽과 같은 대형이벤트는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시차가 1시간밖에 나지 않을 뿐더러 한국의 주요 경기들이 평일, 주말 프라임 타임에 배치되어 올림픽 방송광고가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에 최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올림픽 개최 전부터 앞 다투어 나왔다. 그만큼 방송사들에게도 시청률 경쟁이 치열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시청률의 기대 수준이 높고 스포츠 마케팅 관심이 고조될수록 경쟁은 과열되기 마련이다. 올림픽에 있어 미디어 간 과열 경쟁은 곧잘 편성의 다양성, 시청자의 볼 권리 등 스포츠 중계방송의 품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국내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빅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중계방송에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방송편성의 다양성, 시청자들의 채널 및 프로그램 선택권 제약, 중복편성 등 전파낭비가 지적되었고, 원인으로는 광고매출 경쟁, 시청률 경쟁 등이 꼽혔다. 이러한 원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개선의지와 합의 정신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될 것인가는 언제나 별개의 문제였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새로운 노력이 시도되었다. 올림픽 개최 직전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전파낭비를 방지하고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 올림픽 기간 주요 경기를 번갈아 중계하는 순차방송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KBS, MBC, SBS 3사의 이러한 노력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당시 방송 3사는 축구와 야구의 예선경기만 공동중계단을 구성해 축구는 2사 1경기, 야구는 1사 1경기씩 중계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대표팀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모든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레슬링, 수영, 유도, 양궁, 탁구 등 메달 종목에는 따로 규제를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거 올림픽 때마다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3개 주요 지상파방송의 동시 중계방송, 인기종목 편중, 메달 경기 위주, 과도한 반복 재방송, 비인기 종목의 소외, 중복 편성과 과열 경쟁에 따른 해설 등 진행자의 전문성 저하 등이 지적되었다. ‘볼륨 끄면 똑같은 방송3사’ ‘메달 장면만 재탕삼탕’ ‘시청자 권리실종’ ‘무한재방송’ ‘올림픽 특수에 표류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박탈, 볼 권리 침해, 편성의 다양성 침해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올림픽 때마다 중계방송의 중복편성 문제에 대해 여러 비판은 많았지만 대개 인상비평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스포츠 중계방송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 무대가 되었던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 보편적 시청권 도입과 함께 스포츠방송에 있어 시청자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고 2007년 보편적 시청권, 공동계약, 순차편성 등과 관련한 조항이 국내 방송법에 제정되었는데, 방송법 제정 이후 첫 국민관심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방송법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조항은 방송과 스포츠의 경제적 상호 이해관계로 결정되는 시청자 환경에 대한 규제기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편성에 대해 직접적인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마련한 것은 방송사의 편성권, 재산권과 시청자의 복지라는 양자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베이징 올림픽 방송에서 주요 지상파방송 4개 채널의 중계방송의 중복편성과 시청자의 권리 보호 문제는 여전히 방송사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중복편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현행 방송법에 있는 올림픽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조항의 취지에 맞게 향후 정책 수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분석이라는 통계학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시도되었다.

해외에서 올림픽 방송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양적 분석으로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나타나는 국가(nationality), 인종(ethnicity), 성별(gender)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둘째는 질적 분석으로 스포츠 미디어가 보여주는 전통, 권력, 계층 간 갈등 관점을 조명하는 비판 또는 문화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 방송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지만 국내는 다른 국가와 매우 독특한 문제점을 겪고 있기에 국가, 인종, 성별 집단 간 차이보다는 다소 상이한 편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이 어떤 종목과 경기에서 얼마나 채널 간 중복 편성이 되었는지 등 중계방송의 중복편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 분석은 향후 올림픽 중복편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실증 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베이징 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 때마다 지속적인 편성분석의 자료가 수십 년간 축적된다면 국내 올림픽 방송의 통시적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이번 연구가 그 초석이 될 수 있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인 2008년 8월 7일(개막일 전 축구 예선전 포함)부터 8월 25일까지 총 19일 간 KBS 1TV, KBS 2TV, MBC, SBS 4개 지상파 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포츠 전문 PP채널도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과 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인만큼 유료방송보다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채널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으로 제한하고자 했다.

스포츠 프로그램 유형은 정규 뉴스, 스포츠 뉴스, 중계방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뉴스 등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 유형은 제외하고 중계방송(생중계, 녹화방송 모두 포함)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종목별로는 축구, 야구, 유도, 레슬링, 사격, 양궁, 태권도, 수영, 육상 등 전 종목이 포함되었고 금, 은, 동메달 경기뿐만 아니라 예선전까지 지상파 3사의 4개 채널을 통해 중계방송된 프로그램은 모두 포함되었다.

2) 분석방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분석이므로 반드시 모니터 분석을 요하지 않고 방송사를 통한 편성표 수집 및 자료 분석으로도 분석이 가능하였지만 좀 더 분석의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 기초자료 분석과 모니터 분석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KBS, MBC, SBS의 홈페이지 상에 마련된 올림픽 특집 사이트에서 편성표, 경기 일정, 중계방송 일정 등 자료를 수집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일일이 모니터 분석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쳤으며 일부 편성표와 중계일정이 다른 경우 정정작업을 거쳐 최종 분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모니터 분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방송심의팀의 협조를 받아 2008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방송회관에서 실시하였다.

3) 분석내용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채널 간 국가, 성별, 종목별, 경기별 편성횟수, 편성시간대, 편성 분량 등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분석유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①일련번호 ②채널명 ③날짜 ④시작시간 ⑤종영시간 ⑥방송시간 ⑦한국 경기와 관련성 ⑧종목 ⑨성별 ⑩경기 ⑪방송종류

4. 보고서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제2장에서는 올림픽과 방송의 관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편성의 다양성, 방송법 내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 조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올림픽 중계방송과 시청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주로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KP(Korea Pool)의 운영과 합의사항, 올림픽 중계권, 중계방송 시청률, 광고매출 등을 검토하였고, 아테네 올림픽을 중심으로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하여 유의미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포츠 중계방송 순차편성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주요 함의를 찾아보았다. 제4장에서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이 이루어졌고 제5장은 결론으로 앞선 논의와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제2장 올림픽 중계방송과 시청자 권리보호

1. 미디어스포츠의 등장

1) 미디어스포츠의 개념

현대 스포츠는 방송을 통해 공유된다. 이것은 스포츠가 방송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방송과 스포츠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은 중계와 뉴스를 통해 스포츠를 중요한 방송 콘텐츠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스포츠는 방송을 통해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점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스포츠와 방송 간 공생관계를 살펴보면, 스포츠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엄청난 수익을 확보하며, 방송은 그 콘텐츠를 방송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스포츠는 콘텐츠의 각종 관련 자료를 제공해 방송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스포츠는 방송을 통해 가공되고 포장되어 방송의 특성 속에서 구현되어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스포츠는 주요한 상품으로서 방송 시장에서 자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특정 종목과 선수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다. 또한 방송은 새로운 스포츠와 경기를 만들기도 하고, 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하여 상호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등 공생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윤병건, 2005).

스포츠와 방송 사이의 공생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미디어스포츠(mediasport)' 개념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스포츠는 미디어에 의한 스포츠의 매개(mediation of sport), 즉 미디어에 의해 중재된 스포츠 현상을 통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스포츠는 스포츠와 다양한 미디어가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양식으로 자리한다. 특히 신문, 잡지와 같은 다른 미디어들과 비교할 때, 현대 사회와 스포츠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면서 미디어스포츠는 방송과 스포츠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그 자체가 메시지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 상호 간 의사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중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스포츠는 현장 경기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스포츠 관련 제반 콘텐츠를 의미한다. 즉 미디어스포츠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를 의미하며, 미디어와 스포츠의 결합물로써 생겨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원제, 2005).

2)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작용

미디어는 스포츠의 상업화 과정을 촉진하고 확대하였다. 오늘날 스포츠의 변화는 이러한 미디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가 어떻게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는지 관심을 둔 반면, 미디어가 어떻게 스포츠의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미디어의 주요 기능이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며, 현상에 대한 판단과 해석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스포츠는 이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역할로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는 미디어 콘텐츠가 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관계는 설정되기 어렵고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는 '스포츠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이란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와 미디어의 비대칭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디어와 스포츠를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보고자 하는 접근이 대두되었다. 상호의존적 관계라 함은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하지만, 미디어도 스포츠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서 서로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는 스포츠의 상업화 과정을 더욱 촉진하였고, 스포츠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준호·조성식, 2003).

미디어와 스포츠의 공생관계에 대한 고찰에서 비롯된 미디어스포츠는 방송과 스포츠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먼저 스포츠가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방송은 스포츠를 선호하는 특정 시간대와 이벤트가 있다. 가령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매주 주말에 편성이 되고,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에는 일상적 편성을 붕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송에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도 스포츠와 관련된 방송은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장르가 된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방송사에서는 방송경영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광고주를 유치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스포츠 콘텐츠가 방송사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자사가 주최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기도 한다. 반면, 스포츠가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스포츠 기구들도 방송사에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특히 케이블TV의 등장으로 채널은 증가하였지만, 채널들을 채워 줄 콘텐츠의 수요는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기구가 방송사에 엄청난 중계권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체 방송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방송사의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스포츠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클로즈업·정지동작·리플레이 등의 각종 촬영기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시청자의 취향에 맞춰 경기를 편집하며 멀티카메라에 의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근접촬영기술, 대형스크린과 IT제품의 개발, 동영상 기법 등을 이용한 스포츠의 동시성과 스펙타클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방송제작 기술이 발달하였다(원영신, 2004).

방송이 스포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미디어스포츠 시대에는 스포츠 자체가 방송의 틀에 맞추어 규정을 바꾸고 있다. 방송수입이 증대된 이후에는 광고수입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규칙과 경기시간을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중계권료를 지불한 미국 NBC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금메달 획득이 예상되는 수영과 육상의 경기시간을 개최국인 중국의 주요 방송 시간대가 아닌 미국 동부 시청자들의 저녁시간대로 변경한 것은 방송이 스포츠에 미친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이다.

또한, 스포츠가 방송사의 주요 콘텐츠로 부각되면서 스포츠 기구의 운영자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선수들의 유니폼 색깔과 디자인은 방송중계에 맞추어지고 있다. 경기 결과는 특정 전제 조건하에서만 방송될 수 있으며, 방송이 만들어내는 스포츠 행위의 정형성이 스포츠경기 규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스포츠가 미디어스포츠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스포츠는 이러한 변화에 자발적으로 적응하고 있다(송해룡·최동철, 1999).

2. 올림픽과 방송

1) 올림픽 방송의 전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올림픽 없는 방송은 있어도, 방송 없는 올림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림픽에서 방송의 역할은 지대한 수준에 이르렀다. 쿠

베르탱 남작이 창안한 근대 올림픽의 이념은 세계 젊은이들의 화합을 통한 인류의 결속에 있었는데, 그의 올림픽 이념은 오늘날 방송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실현되었다(서정우, 1986).

지금의 올림픽은 '가장 큰 미디어 이벤트'로 불린다. IOC에 의해 올림픽마다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과 이윤을 추구하였다. IOC는 미디어의 관심을 일관되게 향상시키기 위해 올림픽의 주기를 동계 및 하계로 나누어 2년으로 바꾸었고, 1년에 두 게임의 중계권료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입찰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권한을 허가하였다. 또한 미국 NBA와 같은 프로 스포츠의 올림픽 참여를 허용하면서 미디어에 '팔릴 만한' 올림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Bellamy, 1998).

올림픽에 방송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이었지만, 당시의 올림픽 방송은 라디오에 한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낮은 라디오 보급률과 송신체계의 미비로 인해 올림픽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텔레비전 방송은 생생함과 현장감이라는 영상 미디어 고유의 속성으로 인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소구하였다.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올림픽 중계가 이루어진 1936년 베를린 올림픽부터 텔레비전 방송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베를린 올림픽은 스포츠를 미디어로 인식해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대성공을 거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1960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올림픽에서 방송이 수행하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인공위성과 컬러텔레비전을 통해 전 인류는 동시에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올림픽은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축제이자 최대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미디어는 공식적으로 올림픽의 '일원'이 되었는데, 당시 IOC 위원장이던 사마란치(Samaranch)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모든 형태의 미디어, 다르게 말하여 신문기사, 사진, 라디오, TV방송은 올림픽 운동의 통합된 한 부분이다. 넓은 의미로 올림픽 가족의 구성원이다. 오늘날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IOC는 미디어를 중요한 위치에 놓는 것이 올림픽 헌장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한 가지를 승화시키고, 조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올림픽 운동과 그 사상을 가능한 폭 넓게 진작시키는 것이다(IOC, 1990; Wenner, 1998, 166쪽 재인용).

방송과 올림픽의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한 대회가 1984년 LA 올림픽이다. 당시 조직위원장인 유베로스(Uberoth)가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다란 경기장이 아니다. 문제는 경기장에 몇 대의 TV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느냐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방송을 통해 최초의 흑자를 기록한 상업 올림픽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4년 LA 올림픽 이후, 방송은 올림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는데, 가령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35개 경기장에 800개 이상의 TV 카메라가 투입되었으며, 홈부시 웨이(Homebush way)에 있는 주 경기장에는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들을 중계하기 위해 전 트랙에 카메라 레일을 설치하였다. 심지어 하버 브릿지(Harbor Bridge)와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트라이애슬론 경기 중계를 위해서는 수중 카메라와 항공촬영 카메라까지 동원하였다(한지석, 2000).

2) 올림픽 방송과 TV중계권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올림픽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올림픽 중계권은 올림픽과 방송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올림픽에서 상업적 목표를 갖고 마케팅을 시작한 최초의 대회는 1960년 로마 올림픽이었다. 이 때부터 TV중계권료의 개념이 생겨났는데, 당시 조직위원회는 미국의 CBS와 계약, 39만4천 달러에 미국 내 독점 중계권을 팔았다. 하지만 당시 중계권료 수입은 전액 조직위원회의 몫이었다. IOC로 하여금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한 대회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었다. 조직위원회는 미국 ABC방송으로부터 450만 달러의 중계권료를 받았는데, 그 중 15만 달러를 IOC에 기부했다. 멕시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15만 달러는 소액이었지만, IOC로 하여금 오늘날과 같은 상업적 올림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OC는 1974년 총회에서 IOC 헌장에 들어 있던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차기 올림픽부터 중계권료의 1/3은 IOC의 몫이라는 규정을 헌장에 명시했다(김원제, 2005).

1984년 LA 올림픽은 올림픽 중계권에 엄청난 변화를 발생시켰다. 이전까지 IOC는 올림픽 방송중계권을 가능한 많은 관중을 확보할 목적으로 방송사에 팔았다. 즉 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IOC의 원칙은 올림픽의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중계권 수입도 IOC의 집행비용과 각국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에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당시 LA 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이던 유베로스는 공익성을 중시한 IOC의 원칙을 무시하고 올림픽 중계권을 정보 상품으로 받아들여 시장가치를 추구하였다. 유베로스 위원장은 광고업계에 올림픽 중계권료에 대한 마케팅조사를 의뢰하여 광고수입이 최소 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ABC와 동일한 수준의 액수로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 중계권료를 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2/3, IOC가 1/3로 배분하는 데 있어 당시 조직위원회가 방송시설비 7,500만 달러를 제외한 2억 2,500만 달러의 1/3만을 IOC에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IOC 위원장인 사마란치는 LA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같은 독단적 전횡을 막기 위하여 IOC의 규칙을 개정, 모든 계약에 대하여 IOC의 승인을 획득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올림픽 중계권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디어 담당 이사를 선임하였고, 외부의 민간기업과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IOC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스포츠 비즈니스 그룹인 IMG(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였으며, 미디어에 관한 컨설턴트 계약은 IMG 산하 스포츠 이벤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인 TWI(Trans World International)였다.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 IOC는 1988년 서울 올림픽과 캘거리 동계올림픽의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IOC가 올림픽 중계권 협상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3) 올림픽 중계권료의 급등

올림픽 중계권료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 대회를 거듭할수록 올림픽 중계권료의 인상률이 대폭 증가되었다. 초기에 올림픽 중계권 수입의 대부분은 미국 방송사가 차지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중계권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주관방송사 제도가 도입된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미국 ABC사는 1,350만 달러에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1960년 로마 올림픽과 비교하였을 때 10배나 상승한 금액이었다.

매년 상승하던 올림픽 중계권은 최초의 상업올림픽으로 평가되는 1984년 LA 올림픽을 기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된다. LA 올림픽의 중계권료는 이전 대회인 모스크바 올림픽과 비교하여 약 26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거치며 매 대회마다 거의 1억 달러씩 증가하던 미국 방송사의 올림픽 중계권은 자국에서 개최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소강 형태를 보인 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전 대회 대비 2억 5,900만 달러로 급등한 7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8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액 기록을 갱신하였다.

〈표 2-1〉 역대 올림픽의 중계권

(단위 : US달러)

하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1970 뮌헨		ABC 1,350만	EBU 170만	NHK 105만
1976 몬트리올		ABC 2,500만	EBU 455만	NHK-민방 130만
1980 모스크바		NBC 8,500만	EBU 595만	TV아사히 850만(추정)
1984 LA	345만	ABC 2억2,500만	EBU 1,980만	JP 1,650만 대회협찬금 NHK200만
1988 서울	345만	NBC 3억210만	EBU 2,800만	JP 5000만 기술협력금 NHK 200만
1992 바르셀로나	750만	NBC 4억100만	EBU 9,000만	JP 5,750만 기술협력금 NHK 500만
1996 애틀란타	KP 975만	CBS 4억5,600만	EBU 2억5,000만	JP 7,500만 기술협력금 NHK 1,250만 특별협찬금 1,200만
2000 시드니	KP 1,570만	NBC 7억1,500만	EBU 3억5,000만	JC 1억3,500만
2004 아테네	KP 1,550만	NBC 7억9,300만	EBU 3억9,400만	JC 1억5,500만
2008 베이징	KP 1,750만	NBC 8억9,400만	EBU 4억4,300만	JC 1억8,000만

출처 : 谷口源太郎(2006), 8~9쪽; 정철의(2002), 42쪽 재구성

한편, 유럽 방송사들의 올림픽 중계권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전 대회 대비 약 321%나 급등한 9,000만 달러로 계약한 이래로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위한 컨소시엄인 JP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중계권 협상에서 대폭적인 인상액으로 체결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 유럽, 일본의 방송사들이 속한 대륙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올림픽 중계권료가 급등한 점이다. 한편, 동계올림픽 중계권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역시 지속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ABC의 올림픽 중계권은 1984년 사라예보 대회와 1988년 캘거리 대회를 거치며 매 대회마다 약 4배 정도 인상되었다. 이후 미국의 올림픽 주관 방송사의 중계권 인상폭은 어느 정도 안정된 반면, 유럽 방송사들의 올림픽 중계권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을 기점으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올림픽 중계권료 인상의 이면에 IOC의 장기 계약이 자리하고 있다. 올림픽 중계권은 IOC의 올림픽 마케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쉬카우(cashcow)로서 매 대회 평균적으로 70~80%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 중계권료의 인상은 올림픽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방송사들은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을 방송하는 국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160개국에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220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IOC가 장기적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방송의 다매체 다채널화에 따른 시청률 분산의 영향을 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올림픽 중계권 수입의 배분에 있어서도 대회조직위원회 60%, IOC 40%로 변경해 IOC의 몫을 증대시켰으며, 향후 IOC가 51%, 대회조직위원회가 49%를 차지하는 구도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올림픽 중계권의 인상은 각 방송사의 경영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올림픽 주관방송사로 자리 잡은 NBC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 3개 대회의 중계권으로 23억 달러를,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등 2개 대회의 중계권으로 22억 1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계약에서 총액 가운데 2억 달러는 모회사인 GE의 8년 계약 공식 스폰서 요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 내 올림픽 중계권 획득 경쟁이 일개 방송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회사인 거대

미디어복합기업의 총력전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공영방송사 RAI가 부담금을 채우지 못해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올림픽 중계권이 방송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고액화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谷口源太郎, 2006).

3. 올림픽 방송과 보편적 시청권

1) 스포츠 방송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보편적 시청권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바로 방송 환경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스포츠가 방송사의 킬러콘텐츠로 변모하면서 방송 경영의 핵심적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스포츠콘텐츠를 유료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의 증가라는 양적 변화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던 정보 접근권이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되어 능동성이 강화된 질적 변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비용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 정보 격차와 갈등은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으로 '보편적 시청권[1]'이 논의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1907년 미국 전화회사 AT&T의 연차보고서에 등장한 보편적 접근권으로부터 기원한다. 당시 회사의 사장이던 베일(Vail)은 전화 사업이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전화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기업 이념을 제시했다. 따라서 보편적 접근권의 시작은 기업의 상업적 목적을 보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평등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접근기회를 제한하는 형식적 불평등의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 분야의 보편적 접근권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면, 방송

1) 유럽 국가들과 이전의 관련 논의에서는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방송법에서 '보편적 시청권'으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의 보편적 시청권은 공영방송의 이념이 강한 유럽에서 본격화되었다. 방송 분야의 보편적 시청권은 통신 분야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방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은 전국 어디에서나 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한 방송의 공공적 의무로서 방송 콘텐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계층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사회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정책적 근거는 바로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민들이 커뮤니케이션 기본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민들은 정치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정치적 체제의 본래적 성격에서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고려한 동등한 접근에 대한 권리는 약속일 뿐 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개된 사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Schement, 1995).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날로 격해지고 있는 방송 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방송의 상업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 시장은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한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방송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해지고, 높은 접근성을 지닌 '정보의 부자'들은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계층에 비하여 정보사회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보편적 시청권은 바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끌어들여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단합과 사회적 동질성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가령, 80년대 해태타이거즈는 지역 차별의 폐해와 민주화 항쟁이라는 광주 지역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으며,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셀틱(Celtic)과 레인저스(Rangers)는 각 클럽에 종교적 신념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는 사회구성원의 연대감을 촉진하고, 소속감을 부추겨 동질감을 고취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재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스포츠가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의미는 방송의 공공성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모든 무료 지상파 방송은 지역적 기반과 소유 구조에 상관없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한적 자원인 주파수를 국민으로부터 대여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구성원들이 방송의 존립근거에 대한 주체이자 공익성을 향유해야 하는 실질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공재로서 스포츠를 방송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논의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송이 공공재로서의 의미가 분명한 스포츠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통한 균등한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을 낳는다(송해룡·김원제, 2005).

2) 보편적 시청권의 해외 사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전통이 강한 유럽이다. 1997년 개정된 EU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에 관한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를 통해 유럽 각국의 국민에게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조치가 EU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 지침에서는 15개 회원국의 방송관계 법제·행정의 통일 원칙을 정했는데 EU 회원국들이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스포츠 등 이벤트에 한해 해당 국민들에게 실질적 부분이 무료 방송을 통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생방송, 혹은 시차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EU회원국에 의무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무료방송은 공영방송 혹은 상업방송을 불문하고, 수신료나 케이블 TV의 기본요금 이외에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한 방송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중요 이벤트는 해당 회원국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중요 이벤트에 대한 리스트를 EU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EU위원회는 EU법에 의거하여 각국의 규정에 대한 인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원국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中村美子, 2006).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영국을 거론할 수 있다. 영국은 현대 스포츠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와 관련하여 EPL(English Premier League)이라는 최고의 프로리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BBC로 상징되는 공영방송 시스템과 머독의

BskyB로 상징되는 유료방송 시스템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송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1월 머독의 BskyB가 영국에서 특별지정이벤트로 지정된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에 대한 경쟁에 뛰어들면서부터이다. 특히 1996년 방송법에 의해 수신료와 광고 방송을 재원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시청자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신할 수 있는 '프리 투 에어(Free-to-air)'라는 개념이 제기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권이 확보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특별지정이벤트의 리스트를 제안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특별지정이벤트 리스트(Crown Jewel)를 발표하였다. 특별지정 이벤트 조항이 삽입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이벤트에 대한 무료방송의 우선방송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방송사가 특별지정이벤트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방송하려는 이벤트가 '그룹A'와 '그룹B'의 두 범주 중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한다. 또 Ofcom(영국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그룹A'에 속하는 종목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생중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002년 방송법에 따라 A그룹 방송사업자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방송되어야 하는 이른바 그룹 A 목록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결승 토너먼트, FA 결승 등 축구와 럭비 등 인기 스포츠 경기들이 망라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록은 방송법이 개정될 때마다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조정된다. 또 이러한 스포츠 경기 외에 여왕의 대관식도 특별지정이벤트에 올라 있다(심석태, 2007).

한편, EU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은 1996년 각 주정부가 국제적 차원의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 문제를 고려하여 법제화를 결정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각각의 개별권한 소유자와 스포츠 협회는 추가적 지불 없이 방송에서 국내외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는 자율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지상파방송의 무료 수신과 관련하여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에 대한 규제를 동반한 요인은 디지털TV의 도입과 스포츠 중계권 시장의 발달이었으며, 동시에 유럽의회의 정관 97/36의 1항3조와 TV정관과 관련한 1997년 '국경 없는 텔레비전에 관한 지침'의 개정이었다. 이 조치는 독일에서 스포츠 중계

와 관련한 보호리스트를 제정하도록 하였는데, 주정부 간 협약 5a(5a RfStV)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Breith, 2002; 송해룡·김원제, 2006b 재인용).

> "두드러진 사회적 의미가 있는 대형 이벤트의 텔레비전 방송이 독일에서 암호화되어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단지 그 텔레비전 방송사 스스로, 또는 적당한 조건 하에 제3자가 무료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청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독일 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시적으로 또는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개별 이벤트인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시청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단지 전체 가구의 2/3에서 실제적으로 수신 가능한 프로그램만이 해당된다.

주정부 간 협약에 따르면 대형이벤트는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규정되는데, 이러한 대형이벤트의 지정에는 대중의 폭넓은 관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즉 국가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되면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회적 의미는 시청자의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시청자의 선호도가 주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 통합의 의미를 끌어내는가에 대한 여부도 사회적 의미에서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 통합의 의미를 측정하는 척도는 사회적 구조체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도이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 차원의 선수와 팀에 대한 동일한 정체성 확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내 축구의 위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역사적이고 전통적 의미를 갖는 올림픽은 독일이 국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이벤트로서 자리한다. 이러한 대형 이벤트를 나열하면 동·하계올림픽, 독일이 참가한 모든 유럽선수권 축구대회와 월드컵 축구대회, 독일의 참가와 관계없이 월드컵과 유럽선수권 축구대회 개막전·준결승전·결승전, 축구 분데스리가(Bundesliga) 준결승전·결승전, 독일 축구대표팀의 홈·원정 경기, 독일 클럽이 참가한 챔피언스리그와 UEFA컵 결승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올림픽과 같이 여러 개별경기로 구성된 이벤트의 경우에는 각 개별경기를 하나의 '대형이벤트'로 간주하고 있다(송해룡·김원제, 2006b).

이 밖의 주요 국가들의 보편적 시청권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1999년에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확립되어, 보편적 시청권의 우선방송사로서 무료지상파 방송을 지정하였고 특정방송의 스포츠 중계권 한도를

60%로 제한하였다. 또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 이벤트로 첫째, 이탈리아에서 광범위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벤트 둘째, 이탈리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특성을 가진 이벤트 셋째, 국가대표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이벤트 넷째, 전통적으로 무료 방송을 통해 중계되어온 이벤트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0년 개정된 방송법을 통해 주요 이벤트들은 대중의 상당수가 그 사건을 무료방송 서비스를 통해 생방송 혹은 재방송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게 되는 방식을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중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요 이벤트의 범주는 국사원의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Anti-siphoning rule이라는 인기 스포츠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는데, 이는 인기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무료지상파 방송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유료방송의 진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표 2-2〉 해외 각국의 보편적 시청권 비교

	보편적 시청권 개념	주요 특별지정이벤트
영국	인구의 최소 95% 이상이 시청 가능한 무료지상파방송	무료지상파 의무중계 경기인 '그룹A'와 방송사들에게 독점권을 줄 수 있는 '그룹B'로 분류
독일	전체 가구의 2/3이상이 실제적으로 수신가능한 방송프로그램	월드컵 축구, 올림픽, 국가대표팀 출전 주요 대형스포츠 이벤트
프랑스	성문화된 특별지정사항 부재	올림픽, 월드컵, 유럽축구선수권 대회 준결승전·결승전, 프랑스컵 결승전, 5개국 럭비대회, 투르드프랑스
이탈리아	특정방송사의 스포츠중계권 한도 60%	올림픽, 월드컵, 국가대표팀 출전 주요 대회, 유럽축구선수권 결승전
호주	공영방송과 시청범위 50% 이상의 상업방송	반독점권을 막기위한 Anti-siphoning 리스트와 잉여방송권 양도조항인 Anti-hoarding rule. 크리켓, 축구, 테니스, 네트볼, 골프, 모터스포츠가 포함됨

출처 : 송해룡·김원제(2005), 99쪽.

한편, 상업 방송의 자유가 중요시 여겨지는 미국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유럽과 상이한 형태가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방송사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7년 FCC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에 대해 위헌을 판결하며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해당 법률이 합헌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규제의 목적이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표현과 무관할 것. 둘째, 중대하고도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보장할 것. 셋째,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제한은 이익의 범위보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FCC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은 첫째 조건은 충족하지만 둘째와 셋째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으로 사업의 제약을 받는 유료방송들은 무료지상파방송의 스포츠 편성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며, 유료방송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기스포츠를 생중계하였는데 오히려 스포츠팬들의 시청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다(정용준, 2006).

한편, 미국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이유는 미디어스포츠 시장이 유럽과 상이한 구조를 지닌 점도 기인하고 있다. 축구 위주의 스포츠 시장이 형성된 유럽과 달리 미국은 다양한 인기스포츠가 존재하고 있으며, 유료방송들이 지상파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스포츠를 많이 중계하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의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 내 스포츠중계가 독점보다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동시중계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료방송을 통한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가 시급한 공익적 가치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정서적 측면과 공공재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반영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지정 이벤트를 관할하고 있으며, 철저한 자료조사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4. 국내에서 스포츠와 시청권 보호

1) KP(Korea Pool)의 운영과 파행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국내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국내 방송은 오랫동안

공영방송 위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방송환경이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공영방송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빅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성 문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과 해외 방송사들의 유료방송 진입으로 촉발된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킬러콘텐츠로 평가되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몇몇 업체의 중계권 독점 시도로 인해 방송사들의 영업자유와 시청자들의 볼 권리 충족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국내 무료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계하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스포츠에 대한 시청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송환경이 경쟁형태로 변화하면서 신규 방송사나 유료방송사들이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 독점을 시도하면서 시청자들의 볼 권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방송의 미국 메이저리그 중계권 독점은 시청자들의 권한에 대한 논란을 처음으로 불러일으켰다. 1999년 인천방송은 한국 지상파 3사의 합동방송체제인 KP(Korea Pool)를 제치고 당시 박찬호가 맹활약하던 미국 메이저리그에 대한 국내 독점방송권을 획득하였다. 지역 민방이던 인천방송의 중계권 획득으로 인천·경기지역을 제외한 국민들은 박찬호 경기를 시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과 요청이 거세지자 각 지역의 케이블SO가 전국으로 인천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방송은 메이저리그에 대한 독점중계권을 통해 사실상의 전국방송화를 구현하였다.

인천방송의 메이저리그 독점방송권 계약을 기점으로 지상파3사로 구성된 KP의 운영도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MBC는 박찬호 출장경기를 포함한 메이저리그 독점중계권 확보를 기습적으로 발표해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을 본격적으로 유발하였으며, 뒤이어 KBS가 국내 프로야구를 4년 동안 280억 원에, SBS가 2001~2002 시즌을 독점 중계한다고 발표하였다.

〈표 2-3〉 지상파 3사 간 KP 파기 사례

	스포츠이벤트	파기방송사	내용
1996년	아시안컵	KBS	KBS의 단독 계약, 방송
1997년	월드컵 지역최종예선	MBC	MBC의 단독 방송
1999년	브라질 초정 축구	KBS	KBS가 순차방송 무시, 단독 계약 및 방송
1999년	나이지리아 세계청소년 축구	SBS	KBS의 브라질 초정 축구 위반을 이유로 단독 중계
2000년	메이저리그	MBC	MLB 01~04년 독점계약, KBS와 SBS는 이에 대응해 국내 프로야구, 축구, 농구 독점 계약 후 MBC 참여 제한
2006년	AFC, MLB, WBC	KBS	KBS가 IB스포츠로부터 중계권을 구매하였고, MBC와 SBS가 IB스포츠로부터 중계권 구매를 않겠다는 방송사 간 신사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반발
2006년	WBC	KBS	KBS의 준결승전 단독중계 고집으로, MBC와 SBS가 반발하며 동시 중계를 선언. 이에 대해 KBS는 법원에 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
2006년	올림픽	SBS	SBS가 KP를 깨고 2016년까지 올림픽 독점 중계권 체결

출처 : 김태훈(2006), 84쪽 재구성.

이후 케이블채널 Xports를 보유한 IB스포츠가 AFC(아시아축구연맹) 주관경기의 국내독점권을 확보하면서 일시적으로 스포츠 중계권 협상에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던 지상파 3사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계권 법정 공방과 SBS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 체결을 거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2006년 3월에 개최된 WBC에서 한국 대표팀이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벌이자 KBS와 MBC, SBS는 준결승전 중계를 두고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감정전을 펼쳤다. 당시 대회를 주관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WBC 국내 중계권을 확보한 Xports의 IB스포츠는 KBS를 주관방송사로 하는 지상파방송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BS는 이를 MBC와 SBS에 재판매하여 1,2라운드에 대한 순환중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준결승 이후 중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3사의 신사협정이 깨지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SBS가 2010년~2016년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한 국내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스포츠 중계권 협상을 위한 KP는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였다. KBS와 MBC

는 자사의 주요 뉴스에서 SBS의 중계권 계약을 국부유출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보도를 내보냈으며, 이에 대해 SBS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조하며 지상파 3사 간의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스포츠 중계권 분쟁은 시청자들의 볼 권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방송 경영적 측면만 고려하고 있어, 오히려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방송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였다.

2) 국내 보편적 시청권 도입 논의

국내에서는 2005년 IB스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야구 중계권에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한 일을 계기로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제기되었다.

2005년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이던 손봉숙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지상파방송사가 '우선적'으로 중계하고, 중계우선권을 가질 지상파사업자는 공공성과 시청범위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편적 접근권의 대상이 되는 경기를 선정하는 '보편적 접근권 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장위원회'는 방송위원회 소속 비상임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반면 박형준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시장 독과점 개선책의 수립과 보고 의무를 지고,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와 주요 행사에 대해 시청자 의견청취 및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며,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해야 하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방송위에 조사권 등을 부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봉숙 의원과 달리 박형준 의원의 법안은 스포츠를 포함해 각종 주요 행사를 방송위가 시청자 의견 청취와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시토록 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를 위한 방송위의 규제권한 강화에 초점을 뒀다.

같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손봉숙 의원과 박형준 의원의

두 개 법안은 강조하는 점이 매우 달라 법안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라는 원칙에 있어서도 찬반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를 찬성하는 주요 지상파와 규제기관들은 인기스포츠 중계권 규제를 통하여 지나친 가격폭등과 스포츠 상업주의를 막고 국민들이 인기스포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법제화에 반대하는 뉴미디어 사업자들은 법제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고 지상파의 독과점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시청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07년 1월 26일 국내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 조항이 도입 제정되었다. 보편적 시청권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영국 중심의 유럽 국가들은 유료방송 시대에 국민들의 기본적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받아들인다. 반면 미국은 방송사업의 자유를 막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유료방송의 폐해가 많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3) 방송법에서 시청자 권리 보호 조항

보편적 시청권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법에서 스포츠 시청 권리와 관련된 조항은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4, 제76조의5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이 스포츠 보편적 시청권 관련조항에 해당한다.

이들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보편적 시청권 보호,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공동계약 권고, 순차편성 권고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호 조항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될 것을 규정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관련 조항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나 중계방송권자에게 금지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포츠 등 국민관심행사에 있어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시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계약을 권고하거나 순차편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방송법 내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방송법 제76조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적 시청권이란 반드시 스포츠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해 "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관심행사 고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제76조의 2).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방송사업자나 중계방송권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제76조의3 제1항, 제2항).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대통령령에 의거해 자료제출이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할 수도 있다(방송법 제76조의3 제3항).

만약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방송법 제76조의3 제4항).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로는 첫째, 국민관심행사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상), 둘째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

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 시정조치로는 금지행위의 중지, 개선계획의 제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4)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방송법 제76조의4).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방송법 제76조의5 제1항).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방송법 제76조의5 제2항).

이상과 같이 국내 방송법에는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을 위해 다양하고도, 무료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방송정책 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보편적 시청권은 1차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매나 구매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함으로써, 특정 방송사의 독점을 막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금지행위와 시정조치 조항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나 중계방송권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제출과 사업장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다. 그만큼 다매체

다채널 환경의 미디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방송법 내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조항에는 방송사업자 간 자율 계약의 원칙, 영업의 자유나 편성의 자유 침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향후 어디까지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 등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나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나 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공동계약이나 순차편성 관련 조항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 조항은 방송사업자나 중계방송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현행 방송법 내에서는 공동계약이나 순차편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는 할 수는 있되 어떻게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러한 권고조항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시청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

1. 올림픽과 방송편성

1) 방송편성의 원칙과 목적

편성이란 프로그램의 명칭, 설계, 분량 배치 등의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형식, 시간을 결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이스트만(Eastman)은 다섯 가지의 편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생활주기와 일치해야 하며, 자사 방송에 대해 시청습관이 형성되도록 편성해야 하고, 시청자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선택권을 고려해야 하며,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가급적 최저 비용을 설정하는 최소비용의 최대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소구력을 개발해야 한다(한진만 외, 2006).

편성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면 방송체제나 구조, 혹은 방송의 외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유세경, 2006). 첫째, 편성은 공익성 추구를 목표로 한다. 방송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속성이 부각된다. 이것은 소유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방송이 최소한의 공익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은 대중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방송해야 한다. 둘째, 편성은 시청자 편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편성은 시청자의 라이프스타일, 요구, 선호들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구현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소재와 주제는 무엇인지, 시청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형식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배치할 때 시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는 적합한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편성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편성은 방송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인력, 기술, 기자재, 재원, 시간 등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의 기획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송이 가진 대중 소구력의 잠재성을 개발해야 한다. 일반 대중에게 공유되는 감정과 관심에 소구하는 방송과 특별한 계층의 취향에 부합하는 방송의 역할이 편성 영역에서 공존해야 한다.

2) 스포츠 방송편성의 특성

스포츠에 대한 방송편성은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으로 인해 여타 장르와는 약간 상이한 편성상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방송사는 프라임타임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게 된다. 과거 유료방송 등 스포츠전문 채널 등장 이전에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지상파방송에서 주로 주말 오후시간대에 편성되었다. 이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한 번의 실패가 시청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프라임 시간대를 관리하여 최대의 시간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라임 시간대에는 오락 프로그램이 주로 편성되고 스포츠 이벤트들은 주말 오후시간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지상파방송에게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가 아닌 이상 정규적인 스포츠 중계방송의 프라임 타임 편성은 부담스럽고 스포츠 전문PP 채널 등장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스포츠의 시간대 이동은 시청률과도 관계가 있다.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과 같은 경기를 제외하고 일반 대회나 프로스포츠 정규시즌에 대한 시청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스포츠가 방송사의 시청률과 경영환경을 결정하는 '킬러콘텐츠'로 기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킬러콘텐츠'가 없다는 것도 스포츠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한국의 방송환경에서 스포츠는 한때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고교야구 등이 시청률 수위를 차지하며 킬러콘텐츠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소득이 증대하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제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빅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면 시청자들은 스포츠 방송을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미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유럽의 프로축구와 같이 지상파 방송에서 정규 편성될 만한 국민적 인기 스포츠가 빈약하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점이다.

셋째, 빅 스포츠 이벤트 경우 방송사 전체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자 방송사별 차별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방송사 간 차별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CBS는 전통적으로 농구를 주로 방송했고, ABC는 올림픽과 미식축구에 집중하였다. 또한 월드컵, 올림픽, 한국시리즈, 슈퍼볼 같은 국내외 주요 스포츠 이벤트들은 매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해당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을 증진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들이 빅 스포츠 이벤트 전후로 해당 경기를 소개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도 빅 스포츠 이벤트가 방송사의 타 장르 프로그램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Wenner, 1989).

넷째, 비용도 스포츠 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스포츠는 여타 프로그램처럼 동일한 경제적 선택 기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계권료와 제작비에 소요되는 지출이 방송사의 고민으로 등장하였다. 스포츠는 항상 중계권료와 제작비용이 지출되지만, 오락 장르는 라이선스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과 같은 장르는 방송사 자체로 제작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사들은 시청률이 보장된 빅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인기 없는 스포츠 종목의 중계방송 편성을 회피하게 만든다.

다섯째, 젊은 시청자 위주의 수용자 시청 패턴의 변화도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지상파방송만 유일했던 시대에는 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지상파방송을 통해 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많았지만 케이블 TV 등 스포츠 전문PP 채널의 등장으로 스포츠 시청자층은 전문화된 스포츠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유료 매체에 가입하거나 VOD 등 자신들이 편리한 시청시간대 원하는 스포츠 방송을 시청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 방송의 최대 시청자 계층인 젊은 세대가 인터넷 혹은 컴퓨터 게임과 같은 대체제로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스포츠 편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IT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한국에서 젊은 층들의 TV 채널 이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소득이 증대되면서 스포츠 선호 시청자들이 주요 스포츠 편성 시간인 주말시간대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스포츠 시청자들의 실질적 스포츠

참여는 주 5일제 근무에 의한 여유 시간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 변화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제는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며 대리만족 했던 스포츠의 관전 문화가 직접 참여 스포츠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 방송의 편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미치는 요인

방송편성은 방송편성의 결정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림픽 방송에 대한 편성연구는 방송편성 현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스포츠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편성은 주로 편성을 담당하는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편성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방송편성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제작하여,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송을 둘러싼 모든 요인들이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도 방송편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송사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방송과 관련 있는 법적·제도적 조건, 시청 여부와 관련 있는 수용자 조건 등이, 후자에는 방송사의 정관, 사시, 경영방침 등의 정책적 조건과 예산,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제작조건 등이 포함된다(한진만 외, 2006).

스포츠 방송의 편성도 이러한 방송사 내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에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스포츠 중계를 둘러싼 법제도적 요건과 수용자 조건이 포함될 것이다. 오랜 동안 국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을 담당해온 방송제도로서 KP의 운용, 개정된 방송법 내 순차편성 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방향 등 법제도적 요건과 시청률과 시청자의 요구수준 등 수용자 조건이 포함된다. 반면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에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는 주로 제작조건과 관계되는데 방송사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계권료, 광고수입, 제작비 등이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1) 외적 조건

① 코리아풀(KP)의 운용과 합의사항

올림픽 방송의 편성요인 중 첫 번째가 바로 코리아 풀(Korea Pool)이다. 이것은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 외적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림픽뿐만 아니라 빅 스포츠 이벤트 전반에 적용되는 국내 방송의 제도적 특성이다.

코리아 풀은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에 대한 방송사 간 과당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정부는 수출 주도의 경제 체제를 장려하여, 가급적이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책 노선이 견지되었다. 당시 문화공보부(現 문화관광체육부)는 통상적 가격보다 비싼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거래의 원인을 점검하였고, 방송사 간 과당 경쟁을 통제해 외화의 유출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코리아풀이 형성되었다(송해룡·김원제, 2005).

문민정부 이후 외환규제가 완화되고, 국내 방송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코리아 풀은 일시적인 방송 3사의 중계권 협상조직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박찬호 메이저리그 중계권,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한 지상파 3사 간 독점중계권 체결로 인한 갈등으로 코리아 풀은 여러 번 해체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에 있어서 코리아 풀은 지상파 3사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의 중계방송을 위해 지상파 3사는 코리아 풀을 구성하여 IOC와 총 60억 원의 중계권료 협상을 체결하였고, 방송사 간 신사협정을 통해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을 논의하였다.

코리아 풀의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합의결과가 무엇인지는 올림픽 중계방송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편성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를 앞두고 코리아 풀의 운용에는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어 그 동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이유는 2006년 SBS가 코리아 풀을 깨고 2016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체결하여 코리아 풀의 내부 갈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리아 풀 내에서 KBS, MBC, SBS의 공조체제가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그 어느 올림픽보다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지만 코리아 풀의 내부 갈등이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수용자 복지 차원에서 코리아 풀의 공통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데는 여러 제약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코리아 풀의 내부 공조체제가 긴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아가 공교롭게도 베이징 올림픽 개막 전 7월 29일 SBS가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베이징 올림픽 리허설을 미리 공개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다른 방송사들까지 함께 코리아 풀이 IOC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사건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KBS, MBC, SBS 방송사들이 코리아 풀 내의 공조 필요성이나 신뢰 구축보다는 갈등, 반목, 경쟁의 환경으로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할 것이다.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7월 15일 한국방송협회는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전파 낭비를 방지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대회 기간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경기를 중복 편성하지 않고 KBS와 MBC, SBS가 순차방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지상파방송 3사는 야구 대표팀이 치르는 예선 3게임의 경우 각 사가 돌아가면 중계방송을 하고 한국 축구대표단의 예선 3경기는 경기당 2개 방송사가 방송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8강에 오를 경우에는 각 방송사의 판단에 따라 방송을 함으로써 올림픽 경기중 축구와 야구 예선전 일부 경기만 순차방송하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또 레슬링, 수영, 유도, 탁구 등 다른 종목들은 방송사들이 각각 중계함으로써 중복편성이 불가피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코리아 풀은 처음으로 올림픽방송에서 순차편성을 합의하고 이를 공표했다는 데는 의의가 있으나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

지상파 3사의 지나친 경쟁으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코리아 풀의 효용성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실제

지상파방송사들은 코리아 풀 내에서 공조체제를 수시로 무너뜨리면서 신뢰보다는 상대사에 대한 배신감과 갈등이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코리아 풀의 운영 형태는 그 동안 제기되어온 올림픽의 중계방송 중복편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코리아 풀의 내부 공조체제가 긴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2008년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일부 순차편성 등을 시도하고 공표한 것은 권고조항의 형태이더라도 어쨌든 방송법 내 순차편성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규정이 권고조항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더라도 중복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외부 여론이 좋지 못할 경우 편성규제가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② 방송법 규정

일반적으로 제도적 요인은 편성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 요인으로 꼽힌다. 가령 방송법의 경우 외화 수입 비율과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편성 과정에서 방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법 내에 스포츠 중계방송 편성과 관련된 조항은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이 된다. 그런데 현행 방송법 내에 올림픽 중계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조항이 지상파방송사들의 중계방송 편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편성규제는 간접적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되지만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직간접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방송법 내 조항이 아직까지는 의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내에서는 스포츠 중계방송의 순차편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법 제76조의5 제1항에는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76조의5 제2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방송협회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완전하지는 않

지만 순차편성에 대해 합의사항을 공표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방송법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로 파악된다. 즉 올림픽 중계방송을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축구와 야구의 일부 예선전이지만 방송사들로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준 셈이다.

③ 시청률

사실 시청률은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방송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방송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청률이다. 물론 독점적인 미디어렙이라는 특수한 국내 방송제도 아래에서 시청률이 방송편성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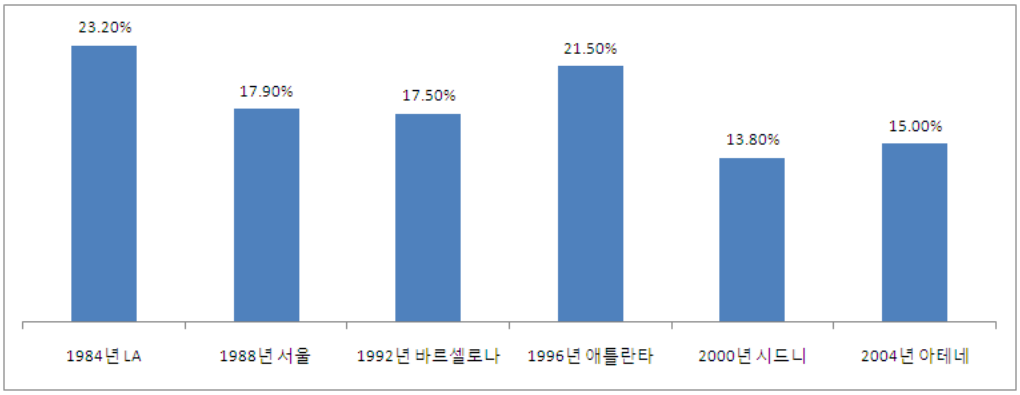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사들은 한정된 재원인 광고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청률은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시청률은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한다. 먼저 시청률의 방송편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연구에서,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지만 채널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방송사들은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채널 간 편성에 있어서 동질화와 획일성이 발생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다(박규장, 2006). 예를 들어 MBC ‘무한도전’의 높은 시청률은 주말 프라임 시간대에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명의 출연진이 특정한 대본이나 구성없이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거나, 출연진들이 특정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중계하는 이른바 ‘무한도전’식 ‘리얼버라이어티’는 추후 KBS의 ‘1박2일’, SBS의 ‘패밀리가 떴다’와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시청률이 방송편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방송시장의 경쟁이 편성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편성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유사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제3의 방송사는 전혀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대응 편성하여 시청자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은 증가하며, 또한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안정임 외, 1992).

시청률이 방송편성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에 있어서도 상반된 부분이 있다. 방송편성에 대한 시청률의 영향은 결국 시청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편성기준이 변한다는 점에서,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미치는 시청률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빅 스포츠 이벤트는 높은 시청률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편성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방송편성에 있어서 프라임 시간의 뉴스는 해당 방송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한 경기가 개최되면 프라임 뉴스의 편성을 흩어놓게 되고,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올림픽으로 인해 뉴스 편성이 변경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올림픽은 시청률로 인해 방송편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3-1〉 미국 내 올림픽 평균 시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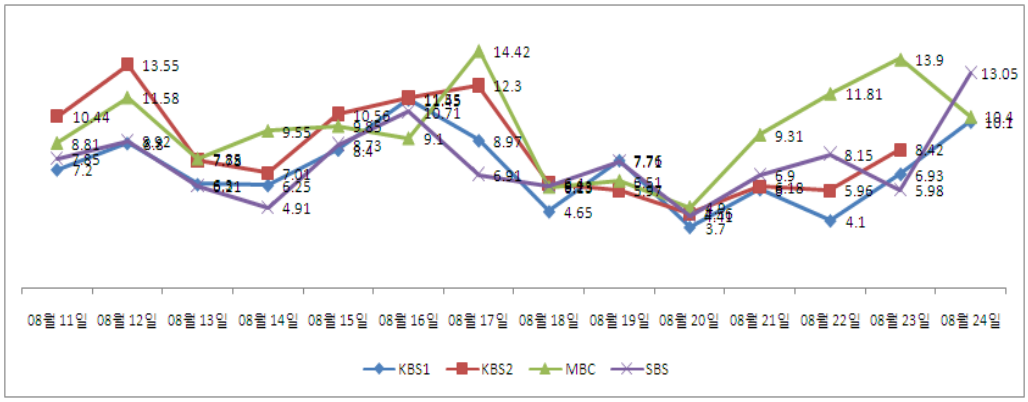
출처 : 隅井孝雄(2006), 56쪽 재구성.

그러나 올림픽 중계방송의 시청률이 항상 일정하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올림픽 시청률을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의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는 대회 기간 동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라이벌 방송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였다. 올림픽이 개최된 후 1주일 동안 NBC의 시청자 수는 CBS보다 무려 4배나 많았

으며, 전 대회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비해서는 25%의 시청률 상승을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BC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고액의 중계권료를 투입하였으며, 사전 광고 판매에 있어서도 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올림픽 중계에 있어서 6,000만 달러의 순익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 예상했던 시청률보다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 NBC는 프라임 시간대 평균 18%의 시청률을 예측하며 광고주에게 16%를 보장하였으나, 대회 기간 동안 평균 시청률은 13.8%에 그쳤다. 올림픽과 같은 빅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미국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보증해준 시청률을 올리지 못하면 시청률과의 차이에 출고 광고편수를 곱하여 보상하는 이른바 '보상광고(make good CM)'관행이 있는데 NBC는 저조한 시청률로 인해 대회 2주째부터는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예정했던 프로그램 홍보 광고를 보상 광고로 대체하고, 시간당 9분이었던 광고를 11~15분까지 늘렸으며, 폐회식에서는 21분의 광고를 배정하는 편성 변경을 시도해야만 했다(류지철, 2005; 隅井孝雄, 2006).

〈그림 3-2〉 지상파 3사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시청률 추이



출처 : AGB닐슨미디어

이러한 측면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한국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은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전국 가구 평균 시청률 집계에 따르면 KBS1 8.1%, KBS2 8.7%, MBC 9.0%, SBS 7.1%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시청률은 평균 5%대 시청률을 기록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비해 약 1.8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2004년 대

회와 비교하였을 때 KBS1은 5.3%에서 8.1%, KBS2는 4.9%에서 8.7%, MBC는 5.3%에서 9.0%, SBS는 4.2%에서 7.1%로 크게 상승하였다[2].

이번 올림픽 방송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중계는 8월 16일 저녁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확정한 순간으로 지상파 3사를 합쳐 총 61.8%를 기록하였다. 뒤를 이어 8월 9일 수영의 박태환 선수의 400m 자유형 예선전이 59.8%, 8월 17일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이 59.4%, 8월 21일 태권도 남자 결승이 57.2%를 기록하였다.

〈표 3-1〉 올림픽 기간 내 전국 시청률 상위 20개

	8월 11일 ~ 8월 17일		8월 18일 ~ 8월 24일	
	프로그램	시청률	프로그램	시청률
1	역도 사재혁 결승(K2)	28.8%	엄마가 뿔났다(K2)	31.9%
2	엄마가 뿔났다(K2)	28.2%	너는 내 운명(K1)	29.2%
3	역도 중계(K2)	27.1%	야구 시상식(M)	28.1%
4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M)	25.0%	야구 결승(M)	27.6%
5	배드민턴 혼합복식(M)	24.8%	베이징올림픽(M)	27.1%
6	조강지처 클럽(S)	24.8%	태권도 차동민 시상식(M)	23.4%
7	너는 내 운명(K1)	24.2%	식객(S)	22.1%
8	식객(S)	23.5%	야구 결승(K2)	20.8%
9	펜싱 남현희 결승(K2)	22.4%	행복합니다(S)	19.6%
10	일요일이 좋다 1부(S)	21.7%	탁구 당예서 예선(S)	18.7%
11	배드민턴 혼합복식 시상식(M)	21.6%	일요일이 좋다 1부(S)	18.3%
12	수영 박태환 1500m 예선(K2)	21.3%	야구 시상식(K2)	17.3%
13	야구 한일전 예선(K2)	19.6%	해피투게더(K2)	17.2%
14	역도 사재혁 시상식(K2)	19.5%	전설의 고향(K2)	16.8%
15	역도 장미란 결승(K1)	18.8%	태권도 임수정 시상식(M)	16.6%
16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K2)	18.3%	KBS뉴스9(K1)	16.3%
17	베이징올림픽(K2)	18.2%	베이징올림픽(S)	16.2%
18	배드민턴 혼합복식 시상식(S)	18.1%	야구 미국대 쿠바 준결승(M)	15.9%
19	펜싱 남현희 준결승(M)	17.8%	해피선데이(K2)	15.6%
20	해피투게더(K2)	17.8%	베이징올림픽(M)	15.6%

출처 : TNS미디어

2) 세계일보 8월 25일자 기사 “올림픽중계 광고수익 230억..아테네보다 40억 늘어”

올림픽 기간이었던 2008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청률 20위 내에 올림픽 중계방송(시상식 포함)이 14개가 포함되었고,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20위 내 11개가 올림픽 중계방송이었다. 그만큼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계방송은 시청률 측면에서는 성과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청률 상승은 아테네보다 시차가 적은 베이징이라는 개최지 특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금메달 획득 순간과 같은 주요 경기에 대한 편성이 2004년 아테네 대회에 비해 2008년 베이징 대회가 훨씬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메달 유력 종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상파 3사가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이 다시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2) 내적 조건 : 방송경영

① 중계권료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제작비인데 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계권료이다. 특히 1990년 초만 하더라도 제작비가 적게 들어 다른 장르에 비해 스포츠는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식·박영옥, 2001).

제작비가 낮고 시청률이 높을수록 방송사 편성에서 선호하는 장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대형 스포츠는 중계권료가 높지 않고 시청률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방송사가 편성에 있어 대단히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IOC의 상업화 등에 따라 올림픽과 같은 국제 경기의 중계권료는 급등해왔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월드컵 등 세계적인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중계권료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은 국내외 모두 동일하다.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에서 중계권료가 급등하는 데는 물론 FIFA나 IOC의 상업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방송사들 간 경쟁이 올림픽 중계권료를 계속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올림픽 중계권료는 1984년 LA 올림픽 345만 달러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345만 달러,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750만 달러,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975만 달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1,375만 달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1,550만

달러에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1,750만 달러에 이르렀다.

중계권료의 급등과 함께 IOC가 장기계약 방식으로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국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사가 자유롭게 중계권료와 시청률을 고려하여 편성을 선택하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중계권료에 맞춰 국내 방송사의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올림픽 중계권료는 시장주의 아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과 수입은 법제도로 엄격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위탁판매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광고판매방식은 중계권료나 시청률에 따라 탄력적으로 광고단가를 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방송사 수입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계권료는 방송사 경영을 더욱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IOC의 장기계약으로 이미 과도하게 고액으로 결정된 중계권료는 광고시장과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미디어 시장 상황에서 국내 지상파방송사로 하여금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반복적인 중복편성을 극대화하여 이득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 광고수입

올림픽 편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경제적 요인은 광고수입이다. 일반적으로 광고의 역할은 방송사의 재원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방송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에 집중되었다. 1971년에서 1985년까지의 미국 주요 방송사의 편성을 분석해 본 결과, 프로그램 재편성에 있어서 제작비와 광고매출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광고매출은 궁극적으로 시청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작비와 시청률이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도달했다(Aktin & Litman, 1986).

또한 광고는 방송사 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방송편성은 제한된 광고시장을 바탕으로 여러 미디어가 경쟁하는 방송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새로운 미디어와 다양한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방송환경으로 변화하자, 방송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방송편성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송사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획득할수록 광고매출이 증가하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방송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박규장, 2006).

스포츠 방송에 대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것은 해당 연도에 개최되는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한 중계방송을 한 패키지로 묶어, 연초에 스포츠 연간 광고에 참여한 광고주의 광고를 매 방송 시에 내보내는 형태이다. 이전에는 1년 단위의 일괄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광고를 소진하였으나, 최근에는 2년 동안의 시청률을 바탕으로 인기 스포츠와 비인기 스포츠, 방송시간대에 따라 프라임 시간대, 주말 시간대, 평일 오후 시간대로 구분하여 연간 광고계약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계약방식은 스포츠 중계의 편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림픽과 같은 어느 정도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는 빅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에는 해당 없지만 비인기 스포츠의 경우에는 주말 등 주요 시간대에 편성되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면 방송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의 인기에 따라 상이한 편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광고주 입장에서도 연간 광고계약 방식으로 인해 시청률이 낮은 비인기 스포츠의 편성에 대해서도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판매방식을 개별 판매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방송 편성에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연간 판매방식은 통괄 패키지 계약형태로 비인기 스포츠가 인기 스포츠와 묶여서 판매되는 형식이었고, 방송도 이에 따라 비인기 스포츠를 편성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개별 판매방식에 따르면 일부 인기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광고 판매가 불확실할 것이고, 비인기 스포츠 방송에 대한 제작비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 스포츠의 방송편성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윤병건, 2005).

연간 판매방식과 달리 올림픽과 같이 고액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빅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방식이 도입되는데,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올림픽만 따로 광고를 판매하게 된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지상파 3사는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총 176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수익 중에서 광고수익은 총 131억 원, 협찬 수익은 45억 원이 소요되었다. MBC는 총 9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는데, 70억 원이 광고 증가를 통한 수익이었고 23억 원이 올림픽에 따른 협찬 수익의 증가액이었다. 한편, SBS는 총 107억 원의 올림픽 방송 수익을 거두었다.[3)]

지상파 3사가 2008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팀의 선전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개최지의 이점을 누린 것이다. 하지만 유도, 양궁과 같이 짧은 경기 시간에다가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는 일부 종목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메달 획득 시에는 지나친 반복 방송으로 일관한 것도 시청률에 따른 광고매출을 의식한 결과이다. 이것은 경기의 중요성보다 관심의 중요도에 따라 중계방송을 편성하여 다양한 시청자 서비스 측면에서 미흡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③ 기타 제작비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제작비에는 중계권료를 비롯해 중계팀 현지 파견에 따른 체재비 및 시설사용비 등 해외 제작비와 국내 제작비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중계권료가 가장 주요한 제작비라는 측면에서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앞서 기술하였다. 그러나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조건으로 방송 수익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중계권료 외 기타 제작비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올림픽 중계 및 스포츠 뉴스제작, 특집 프로그램 등 기타 경비가 포함되어 KBS는 128억 원 정도가 중계권료 외 추가로 예산 편성되었고 MBC는 프로그램 직접 제작비를 포함해 방송발전기금과 광고 수수료까지 68억 원 정도, SBS는 44억 원 정도가 제작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별로 적지 않은 올림픽 중계방송 제작 비용은 방송 경영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 사별 동일한 형태로 현지 제작/취재팀을 파견하여 중복 제작비를 투자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동일한 제작/취재팀 파견에 따른 중복 제작비 지출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나아가 이러한 중복 투자가 곧 중복 편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

3) 2008년 국정감사 시 이정현 의원실 '올림픽 방송 관련 지상파 3사의 비용내역'에 대한 제출자료 참고.

〈표 3-2〉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지상파방송 3사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광고수입	제작비		
		중계권료	기타 제작비	합계
KBS	176	75.2	53.6	128.8
MBC	93	57	68	125
SBS	107	57	44	101
합계	376	189.2	165.6	354.8

※ 위의 예산내역은 방송사별 제출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2008년 9월 이정현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기존 프로그램 미방영 금액,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용은 금액에서 제외됨. 광고수입은 방송사에 따라 협찬, 광고수입, 한국방송광고공사 집계금액 기준, 수수료 포함 여부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3. 국내 방송사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의 문제점

대회를 거듭될수록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은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의 사용과 대규모 방송단의 파견으로 풍부한 영상과 이야깃거리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매 대회마다 똑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방송편성에 있어서 올림픽 중계의 대표적 문제점은 바로 중복편성이다. 민영방송 출범으로 지상파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 올림픽 중계의 중복방송을 피하기 위한 TV 3사 간 올림픽 방송중계 조정회의에서 방송 3사는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KBS, MBC, SBS 텔레비전 3사가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중복편성을 피하도록 하며 경기는 종목별로 사전에 조정 및 배분하여 제작토록 했다. 이 회의는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했는데 TV 3사 비중복편성원칙을 애초부터 확고히 지킬 마음이 없었음이 협의내용에 이미 내포되었다. 이곳에서도 서로 경기 중계 배분을 합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지에서 중요한 경기의 중계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 일부 메달 진입권에 드는 경기의 경우 3개 채널의 화면이 똑같은, 즉 화면의 '전체주의'가 실현되어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을 보는 듯했다(이관열, 1992, 51~52쪽).

올림픽 중계방송의 중복편성은 대회를 거듭할 때마다 지적되는 고질적 문제이다. 지상파 3사는 신사협정을 통한 순환편성으로 다양한 경기를 전달하겠다

는 결의를 하지만, 시청률과 메달지상주의에 함몰되어 매번 똑같은 문제점을 되풀이 하고 있다. 가령,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도 지상파 3사는 종목별로 중복되지 않게 '공동해설위원제'를 도입하였지만, 한국 선수들의 메달 가능성이 높은 쇼트트랙만큼은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둘째, 중복편성과 더불어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편중편성이다. 여기에서는 금메달 유력 종목, 한국관련 경기, 특정 인기종목 등의 편중편성이 문제가 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중복편성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는 금메달 유력 종목에 대한 편중편성이 높을수록, 지상파 3사의 중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중계방송 편성분석에 따르면, 한국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하고 승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세계정상급 선수들의 기량과 인간의 한계가 확대되는 장면을 보려는 스포츠 팬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 선수들의 경기가 한국 선수들의 경기 중계 때문에 지나치게 희생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폐쇄주의적 국수주의'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관열, 1992).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대한 중계방송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금메달이 유력한 쇼트트랙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상파 3사의 중계에서 외면되었다. 당시 개최지인 이탈리아와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를 전후하여 경기가 시작되지만 주로 새벽 1~2시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또한 낮에도 전날 새벽경기를 내보내는데 급급했는데, 한국 경기만 잠깐씩 중계해주고 정작 동계스포츠의 주요 종목들은 외면하였다(송해룡·김원제a, 2006).

〈표 3-3〉 2004 아테네 올림픽 한국 관련 편성시간

	총 편성시간	한국 편성시간	비율
KBS1	7,355분	5,735분	78%
KBS2	6,760분	5,165분	76%
MBC	8,010분	6,390분	80%
SBS	8,220분	6,780분	82%
합계	30,345분	24,070분	79%

출처 : 방송위원회(2004), 3쪽.

직전 하계대회인 아테네 올림픽에 대한 중계방송에서도 한국선수의 출전경기는 지상파 3사 총 24,070분 편성되어 전체 중계방송 편성시간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성 종목 중에서도 인기종목[4]과 비인기종목 간 편성시간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인기종목인 축구의 경우 편성시간이 전체 올림픽 경기 중계시간에 10.2%에 달하며, 이는 편성시간이 가장 적은 조정의 편성시간의 125배에 해당하였다(방송위원회, 2004).

최근 지상파방송 스포츠 중계방송은 지나치게 대형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편성된 월드컵 축구대회,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방송이 지상파방송 전체 중계방송에서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경기 중에서 국가대항전 경기에 대한 편중성은 전체 경기중계방송 중 7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박보현, 2008). 따라서 지상파TV의 스포츠중계방송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국가대항전 경기가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한다.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국가대항전에의 편중성 문제는 올림픽 중계방송 안에서 다시 금메달 위주, 인기종목 위주, 한국 관련 경기 등에 편중됨으로써 스포츠 중계방송에 있어 이중, 삼중의 심각한 편중방송의 문제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해외 사례 : 일본을 중심으로

1) 일본의 스포츠방송

일본의 스포츠방송은 인터넷 보급 이후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TV에 의한 스포츠방송에 한해서도 케이블TV를 통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방송법에서 말하는 "공중에 의해서 직접 수신되는 무선통신의 송신(제2조)"이라는 방송의 의미도 변할 전망이다.

일본의 '스포츠방송'은 지상파 방송인 NHK과 민방, BS방송인 NHK와 WOWOW, BS디지털 방송과 CS디지털 방송[5]이 합쳐지는 다매체·다채널화가

4) 2008년 8월호 광고정보의 '올림픽 방송광고 시장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올림픽 스포츠 종목은 축구, 양궁, 야구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산업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스포츠는 영상정향적(visual-oriented), 극적(dramatic)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적의 TV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빅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싼 중계권 쟁탈전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중계권료가 급등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스포츠 중계권료에 대한 논쟁은 JSkyB가 스모대회와 J리그 중계권을 일괄구입한 시점에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에서 활약하던 축구선수 나카타의 인기에 힘입어 세리에(serie)A도 방송되었다. 스모는 NHK가 전(全) 시즌을 방송하고, 경기 하이라이트는 1959년부터 2003년까지 테레비아사히가 방송해 왔으나, 그 이후는 NHK가 방송하고 있다. 반면, 축구는 WOWOW가 먼저 세리에A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하였으나, 그 후 스카파에 뺏겨 2002년 한일 공동주최 월드컵 축구 전(全) 64시합 완전생중계와 재방송권이 스카파로 결정되었다. 당시 일본 축구팬들에 대한 배려는 개막전, 결승전, 일본전 등 시합을 종래와 같이 특별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이 일본 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였다. 다시 말해, 스포츠가 “대중에게 침투한 문화로써 성숙”하고, 또한 “국민적 행사로 불릴 스포츠·이벤트”가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이 매년 행하고 있는 “미루스포츠(見るスポー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모는 90년대 초반 1위(94년 2월 55.6%)를 차지한 이후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로야구가 1위(4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2위 마라톤(34.0%), 3위 역전경주(28.5%), 4위 고교야구(27.0%), 5위 프로축구(25.0%)였다. 하지만, 프로야구 인기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치우쳐 있어(요미우리 24.8%, 한신 14.5%, 주니치 4.4%, 소프트뱅크 4.3%) “누구라도 보고 싶은 스포츠”로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요미우리 경기의 중계권을 특정 방송국이 독점하게 되는데, 이것이 향후 방송광고를 포함한 국민방송에 의한 것인지, 방송광고를 포함하지 않으나 가입료 혹은 페이퍼뷰 방식이 되는 것인지는 차이가 있다.

---

5) PerpectTV와 JSkyB의 합병, DirectTV의 통합에 의해 SKY PerfecTV 커뮤니케이션즈, 축약하여 「스카파」 한 회사가 되었다

〈표 3-4〉 일본의 TV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상품화 관계연표

1951.6.3	NHK실험방송 퍼시픽리그 중계(다이에이 대 긴테츠, 마이니치 대 도큐)
10.3	스모중계
11	6대학야구 중계
1953.2.1	NHK본방송개시(수신계약수 886), 스모 5월 시즌 중계
1953.8.13	NHK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실황 중계(8일간)
1953.8.23	니혼테레비(NTV) 민간방송 최초 본방송 개시
1953.8.29	NTV, 요미우리 대 한신 중계
1954.2.19	NTV·NHK 프로레슬링 중계 (역도산·기무라마사히코 대 샤프형제)
2.24	제3회 아시아대회 중계(NHK,KRT)
1960.8.25	로마올림픽(화면 촬영하여 전송. VTR), NHK방송권료 5만 달러
1968	멕시코올림픽(시청률 51.8%), NHK방송권료 60만달러
1972	뮌헨올림픽(시청률 58.7%), NHK방송권료 105만 달러
1976	몬트리올올림픽, 재팬pool 방송권료130만 달러
1980	일본,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콧. TV아사히 독점중계, 850만 달러
1982	NTV, 요코하마 국제여자역전경기
1984	로스앤젤레스올림픽(시청률 48.8%), 재팬pool 방송권료 1650만 달러.
1988	서울올림픽, 재팬pool 방송권료 5,000만 달러
1990	제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쿄), NTV가 독점방송(2500만 달러)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재팬pool 방송권료5,750만 달러
1996	애틀랜타올림픽, 재팬pool 방송권료7,500만 달러
2000	시드니올림픽, 재팬 컨소시엄 방송권료1억3,500만 달러
2002	솔트레이트올림픽, 재팬 컨소시엄 방송권료3,700만 달러
2004	아테네올림픽, 재팬 컨소시엄 방송권료1억5,500만 달러
2006	토리노올림픽, 재팬 컨소시엄 방송권료3,850만 달러

많은 일본인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04년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도 아테네 올림픽에 대해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0.4%에 달해, '관심없다(19.4%)'를 압도하였다. 이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 개회식을 포함하여 모든 경기를 유료로만 시청해야 한다면,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6년 독일 월드컵이 개최된 후 일본의 방송환경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국 간 지나친 경쟁으로 스포츠 중계권료가 상승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보고 싶은 스포츠 프로그램은 볼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스포츠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스포츠가 멀어지게 되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스포츠 상품화"의 진전은 아마추어의 틀을 벗어낫지만 유

감스럽게도 동시에 “스포츠가 곧 비즈니스”라는 금전적 속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속박을 상징하는 것이 TV에 의한 스포츠 지배이다. 현재 스포츠 기구는 TV방송국과 광고주에 종속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종속이 심화될수록 일반 국민과의 관계는 괴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누구라도 보고 싶은 스포츠를 볼 권리”로서 보편적 시청권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2) 재팬컨소시엄(JC)과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재팬컨소시엄은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에 있어서 일본의 방송기관인 NHK와 민방이 공동 제작하는 방송기구를 의미한다.

재팬컨소시엄의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이전부터 하계 올림픽은 NHK와 민방이 공동중계(1980년 모스크바대회는 일본대표가 출장 보이콧하였지만, 당초의 방송시간을 축소해서 테레비아사히가 독점중계)하고 있었으나, 1976년 ‘재팬풀(Japan Pool)’로서 NHK와 민방이 일본 내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공동으로 획득하였다. 이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협상에는 한 단계 더욱 발전하여 그 이전까지 NHK의 독점중계에서 탈피하여 재팬컨소시엄에 의한 공동방송이 형성되었다. 재팬컨소시엄 구성에는 현지 제작인원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과 중계권료의 상승 등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였다.

재팬컨소시엄의 중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각 경기마다 특정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해설, 실황을 담당했다. 반면 올림픽에서는 방송국에 국한되지 않고, NHK와 민방이 공동으로 해설과 실황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경기를 중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속 방송국의 크레디트는 일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6].

현재 재팬컨소시엄에 가입되어 있는 TV방송국은 NHK, 니혼테레비, TBS, 후지테레비, 텔레비전아사히, 텔레비전토쿄, 독립UHF방송국, WOWOW(월드컵에만 참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담당한 방송국을 살펴보면, 먼저 NHK 관련 방송국들 중 NHK방송센터가 축구/레슬링/핸드볼/하키/사이클로드레이스/남자마라톤/야구/소프트볼/양궁/수영/농구/트라이애슬론/육상

6) 얼굴도 일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개회식 생중계에서는 개시모두에 한해서 얼굴이 나오고 있다. 실황, 해설 방송부스는 1개소로 열에 맞추어 배치되어 있다

경기/체조를, NHK삿포로방송국이 육상/핸드볼/배드민턴을, NHK센다이방송국이 수영/핸드볼/펜싱을, NHK후쿠오카방송국이 체조/축구/비치발리볼/폐회식을, NHK정보네트워크가 유도/수중발레/농구를 담당하였다. 민방에서는 니혼테레비가 축구/여자마라톤/소프트볼/야구/비치발리볼/레슬링/태권도를, TBS가 야구/육상/역도/사이클(로드레이스, 스프린트)을, 후지테레비가 유도/야구/육상(인터뷰)/핸드볼/BMX를, 테레비아사히가 수영/체조/조정/다이빙/수구를, 테레비토쿄가 탁구/테니스/축구 등을 담당하였다.

저팬컨소시엄은 NHK와 민간방송연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NHK 이외의 방송사업자는 민방련에 가입하지 않으면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을 일체 방송할 수 없다. 또한, NHK에서도 올림픽과 축구월드컵을 방송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용 방송에 한정되며, 해외용의 TV국제방송(NHK월드TV, NHK월드프리미엄)에서는 타국의 독점방송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배려와 중계권 상의 제약 때문에 뉴스를 포함하여 일절 방송할 수 없다.

1999년 니혼테레비 계열의 시즈오카 제일테레비가 CM문제를 일으켜서 민방련서 제명되었으나, 다음해, 시드니올림픽의 개막 직전에 조건부로 민방련 복귀를 허용하였다. 이는 시즈오까현의 민방이 4개 있는데 제명처분을 지속할 경우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남은 3개 방송국이 방송을 할 수 없으므로 시즈오카현에서는 경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 4월 19일에는 후지테레비 계열의 간사이테레비가 방송프로그램의 허위방송 문제를 일으켜서 민방련으로부터 2번째 제명처분이 되었다. 이에 따라 킨키 광역권에서는 후지테레비가 방송권을 획득한 경기를 볼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되었다. 시즈오카 테레비의 민방련 복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편성 등의 이유로 독립 UHF방송국을 포함한 다른 간사이 방송국이 후지테레비 제작의 베이징올림픽 중계 방송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들어, 간사이 지방의 민방련 미가입 18국이 간사이테레비의 민방련 일시 복귀를 제안했다. 그리고 약 1년 후의 2008년 4월 17일 민방련은 긴급이사회에서 간사이테레비의 조건부 재입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간사이 지방에서의 후지테레비 제작의 베이징올림픽 중계가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민방의 방송편성은 7월 3일에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여자 마라톤, 유도 남자100kg급 결승, 야구 일본전 등 주요 관심 경기를

프라임타임에 편성하여 생중계하였다. 여자 마라톤은 민방의 독점 생중계로 전국적으로 방송되며, 평일 밤에는 각 계열이 번갈아가며 그날의 경기의 상황을 데일리 하이라이트로 전한다(<표 3-5> 민방 방송편성표 참고).

지상파TV의 총 방송시간은 약 170시간으로 민방의 방송 종목은, 전술한 경기 외 육상 남자 해머던지기 결승, 남자 축구 예선 일본 전 2경기, 소프트 볼 예선 일본전 2경기와 준결승 등, 일본선수의 메달이 기대되는 주목 경기가 편성되어 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인 BS데지타루(デジタル : digital) 방송에서는, 전 종목을 HD 영상인 5.1ch 서라운드(surround) 음향으로 방송한다. BS데지타루 방송에서는 계열의 지상파TV 녹화방송이 중심이었다. 매일 18시~23시에 올림픽 정보와 속보 미니(mini) 프로그램을 띠(belt) 편성하고 있는데, 총 방송시간은 약 145시간이다.

〈표 3-5〉 일본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베이징 올림픽 민방TV방송편성<지상파TV>

베이징	일본	8/9(토)	8/10(일)		8/11(월)	8/12(화)	8/13(수)	8/14(목)		8/15(금)		8/16(토)		8/17(일)	
5:00	6:00	TBS 8:00	EX 8:00									CX 8:00		NTV 8:00	
6:00 7:00	7:00 8:00	개회식 하이라이트	첫일 하이라이트 10:00									대회 하이라이트 9:55		육상 여자 마라톤	
8:00	9:00	10:00 TBS 11:00				TBS 11:00	NTV 10:55			EX 11:00		TX 10:30			
9:00 10:00	10:00 11:00	역도 예선/결승 여자48kg급 13:00			EX 13:00	수영 여자100m 배영(결승) 그 외	수영 남자200m 평영(준결) 그 외	CX 12:59		수영 여자200m 평영(준결) 그 외		레슬링 여자 자유형예선 48kg급/55kg 급 그 외		11:30	TX 12:54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유도 예선 남자60kg급 여자48kg급 그 외	CX 18:30	EX 17:30	유도 예선 남자73kg급 여자57kg급 수영 남자100m 평영(결승) 그 외	13:00 TX 18:30	13:00 유도 예선 남자90kg급 여자70kg급 체조여자 단체결승 그 외 17:30	유도 예선 남자100kg급 여자78kg급 수영 남자200m 평영(결승) 그 외		13:00 유도 예선 남자100kg이상 급 여자78kg이상 급 육상 남자헤머던지 기 (예선) 그 외		13:00 TBS 18:00		EX 18:56	소프트 볼 예선⑥ 일본 × 베네수엘라 15:30 탁구 여자단체 3위결정전 그 외 or 탁구여자 단체전하이라이 트 그 외 18:3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17:30 EX 19:00 수영예선 남자100m 평영 그 외 유도 결승토너먼트 남자60kg급 여자48kg급 그 외 22:51	유도 결승토너먼트 남자66kg급 여자52kg급 수영 남자100m 평영(준결) 체조여자예선 그 외 21:54	축구남자 예선② B조 일본 × 나이지리아 19:58	17:30 EX 18:30 유도 결승토너먼트 남자73kg급 여자57kg급 배트민턴 여자복식 준준결승 그 외 21:54 EX 23:10 테일리 하이라이트 24:10	유도 결승토너먼트 남자81kg급 여자63kg급 소프트 볼 예선① 일본 × 호주 체조남자 단체결승 그 외 23:30 테일리 하이라이트 24:30	EX 축구남자 예선③ B조 일본 × 네덜란드 20:00 EX 23:10 테일리 하이라이트 24:10	17:30 CX 18:30 유도 결승토너먼트 남자100kg급 여자78kg급 체조남자 개인종합결승 그 외 21:54 CX 23:30 테일리 하이라이트 24:30	TBS 19:54 야구 예선② 일본 × 대만 22:54	17:30 CX 19:00 오늘의명장면 &육상남자헤 머던지기예선 하이라이트 그 외 20:00 육상 남자100m (2차예선) 남자투포환 (결승) 남자400m허 들 (1차예선) 여자10000m (결승) 그 외 24:00 테일리하이라이 트 24:28	NTV 19:55 야구 예선③ 일본 × 네덜란드 22:54	대회 전반전 하이라이트 20:00 육상 남자100m (준결·결승) 남자400m허 들 (준결) 여자800m (준결승) 여자투포환 (결승) 그 외 23:54	CX 19:57 야구 예선④ 일본 × 한국 23:10	오늘의명장면 &여자마라톤 하이라이트 20:00 육상 남자헤머던지 기(결승) 여자100m (준결·결승) 여자400m (준결승) 여자삼단뛰기 (결승) 남자10000m (결승) 그 외 24:30	체조종목별 결승 남자마루 남자안마 그 외 수영 남자4×100m 혼영릴레이 (결승) 그 외 22:00
23:00 24:00	24:00 25:00														

				8/18(월)		8/19(화)	8/20(수)		8/21(목)	8/22(금)	8/23(토)		8/24(일)	일본	베이징
				CX 10:00 육상 남자200m (1차예선) 남자400m (1차예선) 남자110m허들 (1차예선) 그 외 13:00	TBS 11:20 야구 예선⑤ 일본 × 캐나다	CX 15:57 싱크로예선 듀엣 프리루틴 18:15	NTV 10:25 소프트 볼 준결승① 12:30 12:55 소프트 볼 준결승②		TX 11:00 탁구 여자단식4차예선 (베스트16) 그 외 or 탁구여자 개인전하이라이트 그 외	TBS 11:00 야구 준결승①	NTV 8:00 대회 하이라이트 9:55 CX 11:00 야구 3위 결정전	TX 12:30 축구 남자 결승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NTV 18:30 체조종목별 결승 남자플라잉 여자2단평행봉 그 외 소프트 볼 예선 하이라이트 그 외	14:30	NTV 18:30 체조종목별 결승 남자평행봉 남자철봉 그 외 트램펄린 남자결승 그 외	14:55 TBS 18:55 오늘의명장면& 싱크로듀엣결승 하이라이트 그 외 20:00 육상 여자헤머던지 기 (결승) 남자높이뛰기 (예선) 남자110m허 들 (준결승) 남자200m (결승) 그 외 24:00 데일리하이라이 트 24:30	NTV 17:55 소프트 볼 결승진출결정시 합 및 3위결정전 19:58	일 본 진 출 시 에만 방송.	14:00 NTV 19:00 오늘의명장면&탁 구하이라이트 그 외 20:00 육상 남자4×100m릴 레이 (1차예선) 남자400m (결승) 여자200m (결승) 남자110m허 들 (결승) 그 외 23:30 데일리하이라이 트 24:28	14:30 TBS 18:30 야구 준결승② 21:54	14:30 CX 18:30 야구 결승 22:00	15:40	NTV 18:00 총집합 20:54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21:54 NTV 23:30 데일리 하이라이트 24:28		22:00 NTV 23:30 데일리 하이라이트 24:28									

<BS데지타루>

베이징	일본	8/9(토)	8/10(일)	8/11(월)	8/12(화)	8/13(수)	8/14(목)	8/15(금)	8/16(토)	8/17(일)
5:00	6:00			BS후지 6:30	BS아사히 배드민턴 여자복식 준준결승 그 외 8:18	BS쟈판 6:30 BS-i 8:30	BS아사히 6:30 데일리 하이라이트	BS-i 8:00	BS후지 7:30 데일리 하이라이트	
6:00	7:00		BS쟈판(Japan) 11:00	유도 결승 토너먼트 남자66kg급 여자52kg급 수영 남자100m 평영 (준결) 체조 여자예선 그 외	데일리하이라이트	수영 여자100m 배영(결승) 그 외 10:30	7:30	야구 예선 제2시합 일본×대만	7:58 BS니혼테레비 13:00	
7:00	8:00				9:18	오늘의 올림픽정보				BS쟈판 12:00
8:00	9:00		**체조 여자 예선**	9:54		11:00		11:00		오늘의 올림픽정보
9:00	10:00		12:30 BS쟈판 14:30						야구예선 제3시합 일본×네덜란드	12:30
10:00	11:00		**체조여자 예선**							
11:00	12:00		16:00 BS후지 17:00							
12:00	13:00		오늘의 올림픽정보							
13:00	14:00	BS니혼테레비 18:00	17:30	BS쟈판 18:00	BS쟈판 18:00	BS-i	BS후지 18:00	BS후지 18:00	BS-i 18:59 BS-i 19:30	BS쟈판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오늘의 올림픽정보	
17:00	18:00	오늘의 올림픽정보		오늘의 올림픽정보	오늘의 올림픽정보		오늘의 올림픽정보	오늘의 올림픽정보	18:00	
18:00	19:00	18:55 18:30		18:30	18:30		18:30	18:30		
19:00	20:00	19:55 20:55								
20:00	21:00	21:55 22:55								
21:00	22:00									
22:00	23:00	BS아사히 23:00 수영예선 남자100m 평영 그 외 유도 결승 토너먼트 남자60kg급 여자48kg급 그 외 26:51	BS후지 23:00 유도 결승 토너먼트 남자66kg급/여자52kg급 수영 남자100m 평영 (결승) 체조 여자예선 그 외 26:24	BS아사히 24:30	BS쟈판 24:30	BS아사히 24:30	BS후지 24:30	BS아사히 24:30	BS-i 24:00	BS니혼테레비 24:30
23:00	24:00			유도 결승 토너먼트 남자73kg급 여자57kg급 배드민턴 여자복식 준준결승 그 외 27:54	유도 결승 토너먼트 남자81kg급 여자63kg급 체조남자 단체결승 소프트 볼 일본×호주 29:30	축구 남자예선B조 일본 × 네덜란드 27:00	유도 결승 토너먼트 남자100kg급 여자78×kg급 체조남자 개인종합결승 그 외 27:54	수영 여자200m 배영(준결) 그 외 26:30	대회 전반전 하이라이트	육상 여자 마라톤 28:00
24:00	25:00							BS후지 오늘의명장면&육상남자해머던지기예선하이라이트 그 외	26:00 육상 남자100m (준결·결승) 남자400m 허들 (준결) 그 외	
25:00	26:00									
26:00	27:00									
27:00	28:00					데일리 하이라이트				
28:00	29:00	BS-i 27:00 개막식 하이라이트	BS아사히 26:30 축구남자예선B조 일본×나이지리아	데일리 하이라이트 28:54		28:00 축구 남자예선 B조 일본 × 네덜란드	28:00 데일리 하이라이트	27:30 육상 남자100m(2차 예선) 남자투포환(결승) 남자400m 허들 (1차예선) 그 외		BS아사히 오늘의 명장면&여자 마라톤 하이라이트
29:00	30:00	29:00	28:58	유도 결승 토너먼트 남자73kg급 여자57kg급	데일리 하이라이트		29:00		29:54	29:04

	8/18(월)	8/19(화)	8/20(수)	8/21(목)	8/22(금)	8/23(금)	8/24(토)	8/25(일)	일본	베이징
	BS니혼테레비 6:30			BS니혼테레비 8:30	BS자판 7:00		BS후지 야구 결승 or 3위 결정전 7:10	BS니혼테레비 6:30	6:00	5:00
	육상 여자마라톤 10:00			소프트 볼 준결승①or② 10:30 (10:35)	탁구 여자단식 4차예선 (베스트 16) 남자 단식 3차예선 10:00		BS후지 8:30 야구 결승 or 3위 결정전 12:00	모음편 9:24	7:00	6:00
		BS-i 12:00 야구예선 제5시합 일본×캐나다 15:10					BS아사히 신체조 결승단체 13:30	BS후지 18:00	8:00	7:00
									9:00	8:00
									10:00	9:00
									11:00	10:00
									12:00	11:00
									13:00	12:00
									14:00	13:00
					BS아사히 16:00	BS니혼테레비 16:00			15:00	14:00
					싱크로 단체 테크니컬 루틴 17:00	대회 하이라이트 17:55			16:00	15:00
	BS니혼테레비 18:00	BS니혼테레비 18:00	BS-i 17:30 오늘의 올림픽정보 18:00	BS니혼테레비 18:00	BS-i 18:00		BS아사히 18:00		17:00	16:00
BS니혼테레비	오늘의 올림픽정보 18:30 BS니혼테레비	오늘의 올림픽정보 18:30 BS-i		오늘의 올림픽정보 18:30 BS니혼테레비	오늘의 올림픽정보 18:30 BS-i	오늘의 올림픽정보 18:30 BS후지	오늘의 올림픽정보 18:30 BS아사히	18:55~23:00에는 매 정시전에 미니편성(5분)으로 속보편성	18:00	17:00
									19:00	18:00
									20:00	19:00
									21:00	20:00
									22:00	21:00
	BS니혼테레비 24:30	BS니혼테레비 24:30	BS-i 24:30	BS니혼테레비 24:30	BS-i 24:30	BS자판 24:30	BS니혼테레비 24:00		23:00	22:00
	체조종목별 결승 남자 플라잉 여자 2단평행봉 그 외 소프트 볼 예선 하이라이트 그 외 27:54	체조종목별 결승 남자 평행봉 남자철봉 그 외 트램블린 남자결승 그 외 28:00	오늘의명장면&싱크로듀엣 결승 하이라이트 그 외 25:35	오늘의명장면&탁구하이라이트 그 외 25:30 육상 남자4×100m 릴레이 (1차예선) 남자400m(결승) 남자110m 허들(결승) 그 외 29:00	탁구 준결승 ①or② 28:00	축구 남자 결승 27:40	모음편 26:54		24:00	23:00
	28:00 데일리 하이라이트 28:58	데일리 하이라이트 28:58	육상 남자높이뛰기(예선) 남자200m(결승) 그 외 29:35 데일리 하이라이트 30:05	데일리 하이라이트 29:58		BS후지 야구 결승 or 3위 결정전			25:00	24:00
									26:00	25:00
									27:00	26:00
									28:00	27:00
									29:00	28:00
									30:00	29:00

제4장 국내 방송사의 베이징 올림픽 편성 분석

1. 분석방법

본 분석은 지상파 방송 3사의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을 대상으로 2008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개회식 하루 전에 시작된 올림픽 축구 예선(2008년 8월 7일)부터 폐막식(2008년 8월 25일)까지 총 19일을 분석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과의 시차(한국보다 한 시간 느림)를 고려하여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의 기본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제외한 중계방송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유목은 채널, 날짜, 방송시간, 한국 경기와 관련성 여부, 종목, 성별, 경기형태, 방송종류로 구분하였다. 방송시간은 특정 종목의 중계방송 시작과 마지막 시간으로 산출하였으며, 한국 경기와 관련성 여부는 한국 선수가 출전한 경기로 구분하였다. 경기형태는 예선전, 32강전, 16강전, 8강전과 같이 메달과 직접적 관련 없는 경기와 준결승전, 결승전, 결선전, 동메달 결정전과 같이 메달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기로 구분하였다. 방송종류의 경우에는 생중계와 녹화중계로 구분하였는데, 구분 방법은 화면 우측상단에 표시되는 'LIVE' 표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녹화중계는 실제 경기에 대한 중계방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뉴스 아이템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장면은 제외하였다.

한편 중복편성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녹화방송을 제외한 생중계 방송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중복편성의 문제점이 특정 경기가 개최되는 실시간에 지상파 3사 모두가 생중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채널별, 종목별, 한국 관련성, 경기 종류별로 중계방송의 중복편성을 분석하였다.

2.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현황

1) 일반 현황

국내 지상파 3사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은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 저녁, 심야 시간대로 구분하여 편성되었다. 오전 시간대의 경우에 중국과 한국의 시차(1 시간)를 고려하여, 현지에서 경기가 시작되는 오전 10시에 맞춰 국내에서는 오전 11시에 당일 경기에 대한 중계방송이 시작되었다. 오후 시간대의 경기는 전날 저녁 주요경기, 오전 경기에 대한 녹화중계,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경기 중계로 구성되어 있다. 저녁 경기의 경우에는 주로 결선토너먼트나 결승전 경기, 혹은 구기 종목의 단체전 경기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심야 시간대 경기는 당일 경기의 하이라이트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계방송의 편성은 지상파 3사를 합하여 총 814건의 편성빈도를 보이고 있다. KBS1이 144건으로 전체 편성의 17.7%를 차지하며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MBC가 245건으로 전체 편성의 30.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SBS도 218건으로 전체 편성의 26.8%를 차지하며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BS2의 중계방송이 207건으로 전체 편성의 25.4%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에 있어서 KBS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빈도 및 시간

	편성빈도	편성시간
KBS1	144건(17.7%)	2,930분(162.7분/일)
KBS2	207건(25.4%)	6,936분(385.3분/일)
MBC	245건(30.1%)	7,729분(429.3분/일)
SBS	218건(26.8%)	7,941분(441.6분/일)
합계	814건(100.0%)	25,536분(1,418.9분/일)

편성시간의 경우, 지상파 3사를 합하여 총 25,536분이 편성되어 일일 평균 1,418분이 중계되었다. KBS1이 총 2,930분으로 일일 평균 162분 정도 편성하며 가장 적은 양을 보이는 반면, SBS가 총 7,941분으로 일일 평균 441분 정도 편

성하여 가장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상파 3사 모두 일일 7~8시간의 올림픽 중계방송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또한 본 분석이 아침시간대와 심야시간대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중계 외에 베이징 올림픽의 소식을 전하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점을 감안할 때, 올림픽 기간 동안 지상파 3사의 방송은 오로지 베이징 올림픽에만 집중하는 '스포츠 전문채널'과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종목별 편성현황

총 28개 종목[7]이 진행된 베이징 올림픽에서 지상파 3사는 요트, 조정, 승마를 제외한 총 25개 종목의 중계를 편성하였다.

편성빈도를 살펴보면, 유도가 85건으로 전체 종목의 10.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편성되었다. 뒤를 이어 수영이 82건으로 전체 종목의 10.1%, 육상이 72건으로 전체 종목의 8.8%, 양궁 71건으로 전체 종목의 8.7%, 핸드볼이 61건으로 전체 종목의 7.5%를 차지하며 편성빈도 상위 5개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KBS1의 종목별 편성빈도를 살펴보면 육상이 37건으로 전체 종목의 25.7%, 수영이 16건으로 전체 종목의 11.1%, 유도가 14건으로 전체 종목의 9.7%를 차지하는 순서로 편성되었다. KBS2는 수영이 26건으로 전체 종목의 12.6%, 양궁이 18건으로 전체 종목의 8.7%, 육상이 17건으로 전체 종목의 8.2%를 차지하는 순서로, MBC는 유도가 27건으로 전체 종목의 11.0%, 양궁이 25건으로 전체 종목의 10.2%, 수영이 21건으로 8.6%를 차지하는 순서로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SBS의 경우에는 유도가 29건으로 전체 종목의 13.3%를 차지하며 가장 편성빈도가 높은 종목인 가운데 양궁이 22건으로 전체 종목의 10.1%, 수영이 19건으로 전체 종목의 8.7%를 차지하였다.

---

7) 근대 5종, 농구,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사격, 사이클, 소프트볼, 수영, 승마,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표 4-2〉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빈도순)

	KBS1	KBS2	MBC	SBS	합계
유도	14건(9.7%)	15건(7.2%)	27건(11.0%)	29건(13.3%)	85건(10.4%)
수영	16건(11.1%)	26건(12.6%)	21건(8.6%)	19건(8.7%)	82건(10.1%)
육상	37건(25.7%)	17건(8.2%)	7건(2.0%)	11건(5.0%)	72건(8.8%)
양궁	6건(4.2%)	18건(8.7%)	25건(10.2%)	22건(10.1%)	71건(8.7%)
핸드볼	10건(6.9%)	15건(7.2%)	21건(8.6%)	15건(6.9%)	61건(7.5%)
탁구	6건(4.2%)	13건(6.3%)	19건(7.8%)	14건(6.4%)	52건(6.4%)
야구	3건(2.1%)	12건(5.8%)	19건(7.8%)	14건(6.4%)	48건(5.9%)
기타	4건(2.8%)	10건(4.8%)	22건(9.0%)	5건(2.3%)	41건(5.0%)
레슬링	3건(2.1%)	11건(5.3%)	11건(4.5%)	13건(6.0%)	38건(4.7%)
태권도	3건(2.1%)	15건(7.2%)	10건(4.1%)	9건(4.1%)	37건(4.6%)
배드민턴	6건(4.2%)	9건(4.3%)	12건(4.9%)	10건(4.6%)	37건(4.5%)
체조	6건(4.2%)	6건(2.9%)	10건(4.1%)	9건(4.1%)	31건(3.6%)
펜싱	7건(4.9%)	3건(1.4%)	8건(3.3%)	9건(4.1%)	27건(3.3%)
역도	3건(2.1%)	11건(5.3%)	7건(2.9%)	5건(2.3%)	26건(3.2%)
축구	1건(0.7%)	5건(2.4%)	5건(2.0%)	7건(3.2%)	18건(2.2%)
농구	7건(4.9%)	1건(.5%)	4건(1.6%)	5건(2.3%)	17건(2.1%)
하키	3건(2.1%)	3건(1.4%)	4건(1.6%)	5건(2.3%)	15건(1.8%)
사격	0건(.0%)	3건(1.4%)	6건(2.4%)	4건(1.8%)	13건(1.6%)
다이빙	4건(2.8%)	3건(1.4%)	2건(.8%)	3건(1.4%)	12건(1.5%)
수중발레	0건(.0%)	5건(2.4%)	2건(.8%)	5건(2.3%)	12건(1.5%)
복싱	3건(2.1%)	2건(1.0%)	3건(1.2%)	2건(.9%)	10건(1.2%)
비치발리	2건(1.4%)	4건(1.9%)	0건(.0%)	3건(1.4%)	9건(1.1%)
합계	144건(17.7%)	207건(25.4%)	245건(30.1%)	218건(26.8%)	814건(100.0%)

* 기타는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누, 소프트볼 등.

지상파 3사의 종목별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야구가 총 4,162분(16.2%) 중계되어 가장 많이 편성된 종목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탁구가 총 2,791분(10.9%), 핸드볼이 총 2,231분(8.7%), 기타가 총 1,964분(7.7%), 양궁이 총 1,834분(7.1%) 편성되었다. KBS1의 종목 별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육상이 총 694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된 가운데 농구가 총 378분, 기타가 총 267분 편성되었다. KBS2는 야구가 총 1,153분으로 가장 많은 편성시간을 보이는 가운데 탁구가 총 736분, 수영이 총 547분 편성되었다. MBC는 야구가 총 1,568분으로 가장 많이 편성된 가운데 탁구가 총 1002분, 핸드볼이 총 705분 편성되었다. SBS는 야

구가 총 1,417분 편성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탁구가 총 897분, 기타가 총 633분으로 뒤를 잇고 있다.

〈표 4-3〉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편성(시간순)

	KBS1	KBS2	MBC	SBS	합계
야구	24분 (.0%)	1,153분 (4.5%)	1,568분 (6.1%)	1,417분 (5.5%)	4,162분 (16.2%)
탁구	156분 (.6%)	736분 (2.9%)	1002분 (3.9%)	897분 (3.5%)	2,791분 (10.9%)
핸드볼	260분(1.0%)	655분(2.5%)	705분(2.7%)	611분(2.4%)	2,231분(8.7%)
기타	267분(1.0%)	252분(1.0%)	812분(3.1%)	633분(2.6%)	1,964분(7.7%)
양궁	138분(.5%)	517분(2.0%)	603분(2.3%)	576분(2.2%)	1,834분(7.1%)
수영	151분(.6%)	547분(2.1%)	398분(1.5%)	408분(1.6%)	1,504분(5.8%)
육상	694분(2.7%)	278분(1.1%)	124분(.4%)	291분(1.1%)	1,387분(5.4%)
축구	125분(.4%)	467분(1.8%)	193분(.7%)	554분(2.2%)	1,339분(5.2%)
배드민턴	65분(.2%)	345분(1.3%)	465분(1.8%)	368분(1.4%)	1,243분(4.8%)
유도	113분(.4%)	320분(1.2%)	391분(1.5%)	367분(1.4%)	1,191분(4.6%)
농구	378분(1.5%)	36분(.1%)	267분(1.0%)	185분(.7%)	866분(3.5%)
역도	36분(.1%)	317분(1.2%)	230분(.9%)	278분(1.1%)	861분(3.5%)
체조	149분(.6%)	192분(.7%)	252분(1.0%)	222분(.8%)	815분(3.2%)
태권도	29분(.1%)	245분(.9%)	186분(.8%)	279분(1.1%)	739분(3.0%)
레슬링	17분(.0%)	142분(.5%)	143분(.5%)	227분(.8%)	529분(2.0%)
하키	46분(.2%)	154분(.6%)	67분(.2%)	169분(.6%)	436분(1.8%)
펜싱	128분(.5%)	84분(.3%)	106분(.4%)	116분(.4%)	434분(1.8%)
수중발레	-	220분(.8%)	56분(.2%)	89분(.3%)	365분(1.4%)
사격	-	76분(.3%)	87분(.3%)	107분(.4%)	270분(1.1%)
다이빙	87분(.3%)	73분(.3%)	35분(.1%)	45분(.1%)	240분(.9%)
비치발리	40분(.1%)	97분(.4%)	-	71분(.2%)	208분(.8%)
복싱	27분(.1%)	30분(.1%)	39분(.1%)	31분(.1%)	127분(.5%)
합계	2,930분 (11.4%)	6,936분 (27.2%)	7,729분 (30.3%)	7,941분 (31.1%)	25,536분 (100.0%)

종목별 편성을 종합하면, 편성빈도는 유도와 같은 한국의 메달 종목이나, 수영 육상과 같은 세부종목을 많이 보유한 기초종목에 대한 빈도가 높은 반면, 편성시간은 경기 시간이 길고 한국 팀이 선전한 구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중계되었다. 또한 유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체급별 종목은 빈도가 높은 반면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반대로 야구와 같이 긴 시간동안 지속되는 종목은 빈도가 낮은 반면 많은 시간이 할당되었다. 또한 종목 별 편성에서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것은 탁구이다. 탁구가 단체전에서 귀중한 동메달을 획득했지만, 대회 전 예상은 협회의 내분과 중국의 높은 벽으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는 빈도와 시간 모두에서 비중있는 편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탁구가 상당히 긴 경기시간을 가진 종목이라는 점 외에도 탁구 남녀 단체전이 벌어진 시기가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이 소강상태를 보이던 시기에 주로 열린 점과 타 종목과 달리 동메달 결정전까지 열렸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육상과 수영도 종목 별 중계 편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종목이다. 지금까지 두 종목은 올림픽의 기초 종목이자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매 대회마다 적지 않은 편성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동양인 최초로 자유형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을 비롯하여, 세계신기록을 연일 갱신한 이신바예바와 우사인 볼트까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기가 연일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별로 차별화된 편성이 두드러졌는데, 채널을 두 개 보유한 KBS의 경우에는 KBS1이 육상 경기에 집중하는 반면 KBS2는 박태환의 메달 여부가 관심인 수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MBC와 SBS 역시 육상 보다는 박태환이 출전한 수영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3사 모두 수영의 세부 종목인 다이빙과 수중발레에 대해 적지 않는 편성을 실시하였다는 점도 눈에 띈다.

〈표 4-4〉 지상파 3사의 종목별 편성 순위

빈도	KBS1	KBS2	MBC	SBS	전체
1위	육상 37건(25.7%)	수영 26건(12.6%)	유도 27건(11.0%)	유도 29건(13.3%)	유도 85건(10.4%)
2위	수영 16건(11.1%)	양궁 18건(8.7%)	양궁 25건(10.2%)	양궁 22건(10.1%)	수영 82건(10.1%)
3위	유도 14건(9.7%)	육상 17건(8.2%)	수영/핸드볼 21건(8.6%)	수영 19건(8.7%)	육상 72건(8.8%)
4위	핸드볼 10건(6.9%)	핸드볼/유도/태권도 15건(7.2%)	야구/탁구 19건(7.8%)	핸드볼 15건(6.9%)	양궁 71건(8.7%)
5위	펜싱/농구 7건(4.9%)	탁구 13건(6.3%)	기타 16건(6.5%)	야구/탁구 14건(6.4%)	핸드볼 61건(7.5%)
시간	KBS1	KBS2	MBC	SBS	전체
1위	육상 694분(2.7%)	야구 1,153분(4.5%)	야구 1,568분(6.1%)	야구 1,417분(5.5%)	야구 4,162분(16.2%)
2위	농구 378분(1.5%)	탁구 736분(2.9%)	탁구 1002분(3.9%)	탁구 897분(3.5%)	탁구 2,791분(10.9%)
3위	기타 267분(1.1%)	수영 547분(2.1%)	핸드볼 705분(2.7%)	기타 633분(2.6%)	핸드볼 2,231분(8.7%)
4위	핸드볼 260분(1.0%)	양궁 517분(2.0%)	기타 683분(2.8%)	핸드볼 611분(2.4%)	기타 1,964분(7.7%)
5위	탁구 156분(.6%)	축구 467분(1.8%)	양궁 603분(2.3%)	양궁 576분(2.2%)	양궁 1,834분(7.1%)

* 기타는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누, 소프트볼 등

3) 한국 관련성 편성현황

지상파 3사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 중 한국 관련 방송 편성은 654건으로 전체 베이징 올림픽 중계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 MBC가 213건의 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를 편성하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SBS도 178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KBS1은 110건으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러나 편성빈도에 대한 채널 내 비중을 살펴보면 MBC가 편성빈도와 마찬가지로 86.9%를 보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KBS2는 73.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개의 채널로 올림픽을 중계한 KBS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용 채널이 한 개 더 있다는 점에서 시청률이 보장된 한국

팀 혹은 선수에 대한 중계 필요성이 타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표 4-5〉 지상파 3사의 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현황

	한국관련	한국비관련	합계
KBS1	110건(76.4%)	34건(23.6%)	144건(100.0%)
	2,194분(74.8%)	736분(25.2%)	2,930분(100.0%)
KBS2	153건(73.9%)	54건(26.1%)	207건(100.0%)
	5,625분(81.1%)	1,311분(18.9%)	6,936분(100.0%)
MBC	213건(86.9%)	32건(13.1%)	245건(100.0%)
	6,964분(90.1%)	765분(9.9%)	7,729분(100.0%)
SBS	178건(81.7%)	40건(18.3%)	218건(100.0%)
	6,991분(88.0%)	950분(11.0%)	7,941분(100.0%)
합계	654건(80.3%)	160건(19.7%)	814건(100.0%)
	21,774분(85.3%)	3,762분(14.7%)	25,536분(100.0%)

지상파 3사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 중 한국 관련 방송은 총 21,774분(85.3%) 편성되었다. 한국 관련 편성시간에서는 MBC가 6,964분(90.1%)을 편성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KBS1이 2,194분(74.8%)을 편성하여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편성빈도와 시간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KBS1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 모두가 편성빈도 보다 편성시간에서 한국 관련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BC의 한국 관련 중계는 편성빈도에서 86.9%였던 비중이 편성시간에서는 90.1%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KBS2의 중계는 편성빈도와 편성시간의 비중 차이가 7.2%로 타 채널에 비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올림픽 중계 중 한국 관련 편성의 빈도와 시간이 차이 나는 이유는 첫째, 핸드볼, 야구, 탁구와 같이 한국 선수들이 선전한 구기 종목에 대한 편성 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야구의 경우, 편성빈도는 1회로 체크되지만 편성시간은 대략 3시간 전후로 체크되기 때문에 편성빈도에 비해 편성시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지상파 3사가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중계하는 반면, 다른 국가 선수들의 경기는 주요 장면만 녹화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시간이 편성빈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표 4-6〉 지상파 3사의 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KBS1	KBS2	MBC	SBS	합계
유도	14건(2.1%)	15건(2.3%)	26건(3.9%)	28건(4.3%)	83건(12.7%)
양궁	6건(.9%)	18건(2.7%)	25건(3.8%)	22건(3.3%)	71건(10.8%)
핸드볼	10건(1.5%)	15건(2.3%)	21건(3.2%)	15건(2.3%)	61건(9.4%)
탁구	6건(.9%)	13건(1.9%)	19건(2.9%)	14건(2.1%)	52건(7.9%)
수영	10건(1.5%)	11건(1.7%)	15건(2.3%)	12건(1.8%)	48건(7.4%)
야구	3건(.4%)	12건(1.8%)	16건(2.4%)	14건(2.1%)	45건(6.9%)
레슬링	3건(.4%)	11건(1.7%)	11건(1.7%)	13건(1.9%)	38건(5.8%)
태권도	3건(.4%)	15건(2.3%)	10건(1.5%)	9건(1.3%)	37건(5.6%)
배드민턴	6건(.9%)	9건(1.3%)	11건(1.7%)	10건(1.5%)	36건(5.5%)
펜싱	7건(1.0%)	3건(.4%)	8건(1.2%)	9건(1.3%)	27건(4.1%)
육상	20건(3.0%)	3건(.4%)	2건(.3%)	1건(.1%)	26건(4.0%)
역도	3건(.4%)	11건(1.7%)	7건(1.0%)	5건(.7%)	26건(4.0%)
기타	2건(.3%)	3건(.4%)	14건(2.1%)	3건(.4%)	22건(3.4%)
체조	4건(.6%)	2건(.3%)	8건(1.2%)	4건(.6%)	18건(2.8%)
하키	3건(.4%)	3건(.4%)	4건(.6%)	5건(.7%)	15건(2.3%)
농구	6건(.9%)	1건(.1%)	3건(.4%)	4건(.6%)	14건(2.1%)
사격	-	3건(.4%)	6건(.9%)	4건(.6%)	13건(2.0%)
축구	-	3건(.4%)	4건(.6%)	4건(.6%)	11건(1.7%)
복싱	3건(.4%)	2건(.3%)	3건(.4%)	2건(.3%)	10건(1.5%)
다이빙	1건(.1%)	-	-	-	1건(.1%)
합계	110건 (16.8%)	153건 (23.4%)	213건 (32.6%)	178건 (27.2%)	654건 (100.0%)

올림픽이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국내 방송의 한국 위주의 중계방송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인류의 스포츠 제전이라는 올림픽에 대한 중계가 지나치게 한국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MBC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시간의 90%를 한국 관련 방송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올림픽이 국내 전국체전이 아닌 국제 대회로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여러 선수들에 대한 소개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4-7〉 지상파 3사의 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KBS1	KBS2	MBC	SBS	합계
야구	24분 (.1%)	1,153분 (5.3%)	1,464분 (6.7%)	1,417분 (6.5%)	4,058분 (18.7%)
탁구	156(.7%)	736(3.4%)	1,002분 (4.6%)	897분 (4.2%)	2,791(12.9%)
핸드볼	260분(1.2%)	655분(3.0%)	705분(3.2%)	611분(2.8%)	2,231분(10.3%)
양궁	138분(.6%)	517분(2.4%)	603분(2.7%)	576분(2.6%)	1,834분(8.4%)
기타	220분(1.0%)	108분(.5%)	668분(3.0%)	573분(2.6%)	1,569분(7.2%)
배드민턴	65분(.3%)	345분(1.6%)	451분(2.0%)	368분(1.7%)	1,229분(5.7%)
유도	113분(.5%)	320분(1.4%)	386분(1.7%)	349분(1.6%)	1,168분(5.3%)
수영	92분(.4%)	277분(1.3%)	341분(1.6%)	288분(1.3%)	998분(4.7%)
축구	-	342분(1.5%)	180분(.8%)	405분(1.8%)	927분(4.2%)
역도	36분(.1%)	317분(1.4%)	230분(1.0%)	278분(1.3%)	861분(3.9%)
태권도	29분(.1%)	245분(1.1%)	186분(.8%)	279분(1.3%)	739분(3.4%)
육상	474분(2.2%)	41분(.2%)	32분(.1%)	22분(.1%)	569분(2.6%)
농구	248분(1.1%)	36분(.1%)	92분(.5%)	164분(.7%)	540분(2.5%)
레슬링	17분(.0%)	142분(.6%)	143분(.6%)	227분(1.0%)	529분(2.4%)
하키	46분(.2%)	154분(.7%)	67분(.3%)	169분(.7%)	436분(2.0%)
펜싱	128분(.6%)	84분(.4%)	106분(.5%)	116분(.5%)	434분(2.0%)
체조	90분(.5%)	47분(.2%)	182분(.8%)	114분(.5%)	433분(2.0%)
사격	-	76분(.3%)	87분(.4%)	107분(.5%)	270분(1.2%)
복싱	27분(.1%)	30분(.1%)	39분(.2%)	31분(.1%)	127분(.5%)
다이빙	31분(.1%)	-	-	-	31분(.1%)
합계	2,194분 (10.1%)	5,625분 (25.8%)	6,964분 (32.0%)	6,991분 (32.1%)	21,774분 (85.3%)

한국 관련 경기의 종목별 편성빈도는 유도 83건(12.7%), 양궁 71건(10.8%), 핸드볼 61건(9.4%), 탁구 52건(7.9%), 수영 48건(7.4%), 야구 45건(6.9%) 순이었고 편성시간으로는 야구 4,058분(18.7%), 탁구 2,791분(12.9%), 핸드볼 2,231분(10.3%), 양궁 1,834분(8.4%), 기타 1,569분(7.2%), 배드민턴 1,229분(5.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 없는 경기를 종목별로 교차분석 한 결과 편성빈도순으로는 육상 46건(28.7%), 수영 34건(21.3%), 기타 19건(11.9%), 체조 13건(8.1%), 수중발레 12건(7.5%), 다이빙 11건(6.9%), 비치발리볼 9건(5.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편

성시간으로는 육상 818분(21.6%), 수영 506분(13.4%), 축구 412분(10.9%), 기타 395분(10.9%), 체조 382분(10.2%), 수중발레 365분(9.7%) 순으로 나타났다.

육상과 수영은 올림픽 기초종목이자 가장 많은 세부종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육상은 우사인 볼트와 이신바예바가 세계신기록을 경신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수영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 최대 이슈메이커인 펠프스의 8관왕 달성 여부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많은 편성이 이루어졌다. 기타의 경우에는 편성빈도에 비해 편성시간이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기타에 해당하는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카약, 소프트볼, BMX 등이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로 결승전과 같은 주요 장면의 녹화 분을 편성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8〉 지상파 3사의 비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빈도

	KBS1	KBS2	MBC	SBS	합계
육상	17건(10.6%)	14건(8.7%)	5건(3.1%)	10건(6.2%)	46건(28.7%)
수영	6건(3.7%)	15건(9.4%)	6건(3.7%)	7건(4.4%)	34건(21.3%)
기타	2건(1.2%)	7건(4.4%)	8건(1.2%)	2건(1.2%)	19건(11.9%)
체조	2건(1.2%)	4건(2.5%)	2건(1.2%)	5건(3.1%)	13건(8.1%)
수중발레*	-	5건(3.1%)	2건(3.7%)	5건(3.1%)	12건(7.5%)
다이빙*	3건(2.5%)	3건(1.9%)	2건(1.2%)	3건(1.9%)	11건(6.9%)
비치발리볼*	2건(1.2%)	4건(2.5%)		3건(1.9%)	9건(5.6%)
축구	1건(.6%)	2건(1.2%)	1건(.6%)	3건(1.9%)	7건(4.4%)
야구	-	-	3건(1.9%)	-	3건(1.9%)
농구	1건(.6%)	-	1건(.6%)	1건(.6%)	3건(1.9%)
유도	-	-	1건(.6%)	1건(.6%)	2건(1.2%)
배드민턴	-	-	1건(.6%)	-	1건(.6%)
합계	34건 (21.3%)	54건 (33.8%)	32건 (20.0%)	40건 (25%)	160건 (100.0%)

* 한국 선수 비출전종목

반면, 한국과 관련 없는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이빙, 수중발레, 비치발리볼의 편성이다. 이것들은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반이 미약하고 메달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한다는 측면에

서 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신체 노출로 인한 여성성의 강조가 두드러지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지상파 3사의 편성 목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가령 비치발리에 경우에는 여성 선수들의 경기가 대부분이었으며, 비치발리가 총 230분 편성되는 상황에서 비치발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배구에 대한 편성은 전무하였다. 또한 다이빙도 남성 선수보다는 여성 선수의 경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올림픽 정식종목이던 사이클[8]에 대한 편성은 없는 반면 수중발레의 경우에는 472분이나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편성의 편향 문제점이 지적된다.

〈표 4-9〉 지상파 3사의 비한국관련 올림픽 중계방송 종목 편성시간

	KBS1	KBS2	MBC	SBS	합계
육상	220분 (5.8%)	237분 (6.3%)	92분 (2.4%)	269분 (7.1%)	818분 (21.6%)
수영	59분 (1.5%)	270분 (7.1%)	57분 (1.5%)	120분 (3.2%)	506분 (13.4%)
축구	125분 (3.3%)	125분 (3.3%)	13분 (.3%)	149분 (3.9%)	412분 (10.9%)
기타	47분 (1.2%)	144분 (3.8%)	144분 (3.8%)	60분 (1.6%)	395분 (10.9%)
체조	59분 (1.5%)	145분 (3.8%)	70분 (1.8%)	108분 (2.9%)	382분 (10.2%)
수중발레*	-	220분 (5.8%)	56분 (1.4%)	89분 (2.3%)	365분 (9.7%)
농구	130분 (3.4%)	-	175분 (4.6%)	21분 (.5%)	326분 (8.6%)
다이빙*	56분 (1.4%)	73분 (1.9%)	35분 (.9%)	45분 (1.2%)	209분 (5.5%)
비치발리볼*	40분 (1.0%)	97분 (2.6%)	-	71분 (1.9%)	208분 (5.5%)
야구	-	-	104분 (2.7%)	-	104분 (2.7%)
유도	-	-	5분(.1%)	18분(.5%)	23분(.6%)
배드민턴	-	-	14분(.4%)	-	14분(.4%)
합계	736분 (19.5%)	1,311분 (34.8%)	765분 (20.4%)	950분 (25.3%)	3,762분 (14.7%)

8) 벨로드롬에서 진행되는 전통적 형태의 싸이클에 대한 편성이 전무함. 다만 싸이클 세부 종목 중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BMX의 편성은 있음.

4) 경기종류별 편성현황

지상파 3사의 메달 관련성에 따른 중계방송 편성을 살펴보기 위해 메달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선전, 32강, 16강, 8강과 메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결선, 준결승전, 동메달 결정전, 결승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표 4-10〉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 편성빈도

		KBS1	KBS2	MBC	SBS	합계
메달 없음	예선	37건 (25.7%)	60건 (29.0%)	79건 (32.2%)	59건 (27.1%)	235건 (28.9%)
	32강	9건 (6.2%)	5건 (2.4%)	9건 (3.7%)	12건 (5.5%)	35건 (4.3%)
	16강	14건 (9.7%)	10건 (4.8%)	21건 (8.6%)	19건 (8.7%)	64건 (7.9%)
	8강	7건 (4.9%)	19건 (9.2%)	14건 (5.7%)	21건 (9.6%)	61건 (7.5%)
	합계	67건 (46.5%)	94건 (45.4%)	123건 (50.2%)	111건 (50.9%)	395건 (48.6%)
메달 있음	결선	24건 (16.7%)	31건 (15.0%)	34건 (13.9%)	23건 (10.6%)	112건 (13.8%)
	준결승전	7건 (4.9%)	32건 (15.5%)	33건 (13.5%)	31건 (14.2%)	103건 (12.7%)
	동메달 결정전	5건 (3.5%)	6건 (2.9%)	12건 (4.9%)	7건 (3.2%)	30건 (3.7%)
	결승전	36건 (25.0%)	44건 (21.3%)	38건 (15.5%)	41건 (18.8%)	159건 (15.9%)
	합계	72건 (50.0%)	113건 (54.6%)	117건 (47.8%)	102건 (46.8%)	404건 (49.6%)
기타		5건 (3.5%)	0건 (.0%)	5건 (2.0%)	5건 (2.3%)	15건 (1.8%)

* 결선은 수영, 육상과 같이 여러 명이 출전하여 메달을 결정하는 경기의 경우 해당되었고 결승전은 토너먼트식의 경기에서 금메달 결승전을 말한다.
* 기타는 개폐회식 및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시상식을 포함한다.

먼저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는 총 395건으로 전체 경기의 48.6%, 메달과 관련된 경기는 총 404건으로 전체 경기의 49.6%를 편성하였다. 먼저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를 살펴보면 예선전은 총 235건으로 전체 경기의 28.9%, 32강전은 총

35건으로 전체 경기의 4.3%, 16강전은 총 64건으로 전체 경기의 7.9%, 8강전은 총 61건으로 전체 경기의 7.5%를 편성하였다. 메달과 관련된 경기를 살펴보면 결선전은 총 112건으로 전체 경기의 13.8%, 준결승전은 총 103건으로 전체 경기의 12.7%, 동메달 결정전은 총 30건으로 전체 경기의 3.7%, 결승전은 총 159건으로 전체 경기의 15.9%를 편성하였다. KBS1은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가 총 67건으로 전체 경기의 46.5%, 메달과 관련된 경기가 총 72건으로 50.0%를 편성하였다. KBS2도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가 총 94건으로 전체 경기의 45.4%, 메달과 관련된 경기가 총 113건으로 54.6%를 편성하였다. 반면, MBC와 SBS는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가 50%대이고 메달과 관련된 경기가 약 47% 전후에서 편성되었다.

〈표 4-11〉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경기종류별 편성시간

		KBS1	KBS2	MBC	SBS	합계
메달 없음	예선	690분 (2.7%)	2,669분 (10.4%)	2,484분 (9.7%)	2,536분 (9.9%)	8,379분 (32.8%)
	32강	172분 (.7%)	80분 (.3%)	312분 (1.2%)	329분 (1.3%)	893분 (3.5%)
	16강	198분 (.8%)	237분 (9.3%)	404분 (1.6%)	392분 (1.5%)	1,231분 (4.8%)
	8강	64분 (.2%)	508분 (1.9%)	369분 (1.4%)	513분 (2.0%)	1,454분 (5.7%)
	합계	1,124분 (4.4%)	3,494분 (13.7%)	3,569분 (13.9%)	3,770분 (14.7%)	11,957분 (46.8%)
메달 있음	결선	595분 (2.3%)	889분 (3.5%)	1,013분 (3.9%)	633분 (2.5%)	3,130분 (12.2%)
	준결승전	197분 (.7%)	913분 (3.6%)	1,047분 (4.1%)	1,145분 (4.5%)	3,302분 (12.9%)
	동메달 결정전	78분 (.3%)	319분 (1.2%)	680분 (2.6%)	419분 (1.6%)	1,496분 (5.8%)
	결승전	458분 (1.8%)	1,321분 (5.1%)	1,019분 (4.0%)	1,573분 (6.1%)	4,371분 (17.1%)
	합계	1,328분 (5.2%)	3,442분 (13.5%)	3,759분 (14.7%)	3,770분 (14.7%)	12,299분 (48.1%)
기타		478분 (1.8%)	-	401분 (1.6%)	401분 (1.6%)	1,280분 (5.1%)

편성시간을 살펴보면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는 총 11,957분, 메달과 관련된 경기는 총 12,299분 편성되었다. 각 방송사별 편성시간도 전체 편성시간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KBS1은 메달관련 경기가 총 1,124분이고 메달관련 없는 경기가 총 1,328분이고, KBS2는 메달관련 경기가 총 3,494분이고 메달관련 없는 경기가 총 3,442분이다. MBC는 메달관련 경기가 총 3,569분이고 메달관련 없는 경기가 총 3,759분이고, SBS는 메달관련 경기와 메달관련 없는 경기가 모두 총 3,770분이다.

〈표 4-12〉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 편성빈도

		KBS1	KBS2	MBC	SBS	합계
한국 관련	메달 관련	45건 (5.5%)	70건 (8.6%)	93건 (11.4%)	73건 (8.9%)	281건 (34.5%)
	메달 비관련	60건 (7.3%)	83건 (10.2%)	116건 (14.2%)	100건 (12.3%)	359건 (44.1%)
	기타	5건 (.6%)	-	4건 (.5%)	5건 (.6%)	14건 (1.7%)
한국 비관련	메달 관련	27건 (3.3%)	43건 (5.3%)	24건 (2.9%)	29건 (3.5%)	123건 (15.1%)
	메달 비관련	7건 (.8%)	11건 (1.3%)	7건 (.8%)	11건 (1.3%)	36건 (4.3%)
	기타	-	-	1건 (.1%)	-	1건 (.1%)

경기종류에 대한 중계방송 편성은 기본적으로 지상파 3사가 주된 중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성적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편성에서 메달과 관련된 중계방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선 토너먼트가 메달과 관련된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메달 관련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에 대한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은 한국의 특정 종목에 집중한 편성과 맞물려 메달 획득이 유력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3〉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 한국관련 경기종류별 편성시간

		KBS1	KBS2	MBC	SBS	합계
한국 관련	메달 관련	687분 (2.7%)	2,385분 (9.3%)	3,148분 (12.3%)	2,853분 (11.1%)	9.073분 (35.5%)
	메달 비관련	1,029분 (4.0%)	3,240분 (12.7%)	3,462분 (13.5%)	3,592분 (14.0%)	11,323분 (44.3%)
	기타	478분 (1.9%)	-	354분 (1.4%)	401분 (1.6%)	1,233분 (4.9%)
한국 비관련	메달 관련	641분 (2.5%)	1,057분 (4.1%)	593분 (2.3%)	797분 (3.1%)	3,088분 (12.1%)
	메달 비관련	95분 (.3%)	254분 (.9%)	125분 (.4%)	298분 (1.1%)	772분 (3.0%)
	기타	-	-	47분 (.1%)	-	47분 (.2%)
합계		2,930분 (11.4%)	6,936분 (27.2%)	7,729분 (30.3%)	7,941분 (31.1%)	25,536분 (100.0%)

5) 방송 종류별 편성현황

지상파 3사의 중계방송 종류별 편성빈도와 시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편성빈도를 살펴보면 생중계가 총 605건으로 전체 중계방송의 74.3%, 녹화중계가 총 209건으로 전체 중계방송의 25.7% 편성되었다.

〈표 4-14〉 지상파 3사의 방송종류별 올림픽 중계 편성

	생중계	녹화중계
KBS1	66건(7.4%)	78건(9.6%)
	1,869분(7.3%)	1,061분(4.1%)
KBS2	168건(20.6%)	39건(4.8%)
	6,193분(24.2%)	743분(2.9%)
MBC	201건(24.7%)	44건(5.4%)
	7,170분(28.0%)	559분(2.2%)
SBS	170건(20.9%)	48건(5.9%)
	7,064분(4.1%)	877분(3.4%)
합계	605건(74.3%)	209건(25.7%)
	22,296분(87.3%)	3,240분(12.7%)

KBS2, MBC, SBS는 전체 중계방송의 80% 전후를 생중계로 편성한 반면, KBS1은 녹화중계가 총 78건을 편성하여 타 채널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편성시간에 있어서도 생중계가 총 22,296분 편성되어 녹화중계 3,240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채널별로 KBS2, MBC, SBS는 생중계가 녹화중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KBS1은 생중계와 녹화중계의 시간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별성은 KBS2, MBC, SBS가 주로 한국 위주의 메달 종목에 집중한 반면, KBS1은 육상과 수영과 같은 올림픽 전반에 걸친 주요 경기를 편성한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KBS2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KBS1의 차별성이 분석된다.

6) 성별 편성현황

지상파 3사의 성별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빈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관련된 편성이 총 458건으로 전체 중계에서 56.3%, 여성과 관련된 편성이 총 308건으로 전체 중계에서 37.8%, 혼성이나 남녀가 동시에 등장한 편성이 총 48건으로 전체 중계에서 5.9%를 차지하였다. 편성시간에서는 남성 관련 중계가 총 14,824분, 여성 관련 중계가 총 8,535분, 혼성 관련 중계가 2,117분이 편성되었다.

〈표 4-15〉 지상파 3사의 성별 올림픽 중계 편성

		KBS1	KBS2	MBC	SBS	합계
남성	빈도	81건 (10.0%)	114건 (14.0%)	139건 (17.1%)	124건 (15.2%)	458건 (56.3%)
	시간	1,565분 (6.1%)	4,037분 (15.8%)	4,605분 (18.0%)	4,617분 (18.1%)	14,824분 (58.1%)
여성	빈도	59건 (7.2%)	78건 (9.6%)	90건 (11.0%)	81건 (10.0%)	308건 (37.8%)
	시간	1,128분 (4.4%)	2,396분 (9.4%)	2,364분 (9.2%)	2,647분 (10.3%)	8,535분 (33.4%)
혼성	빈도	4건 (.4%)	15건 (1.8%)	16건 (1.9%)	13건 (1.6%)	48건 (5.9%)
	시간	237분 (.9%)	503분 (1.9%)	760분 (2.9%)	677분 (2.6%)	2,177분 (8.5%)
합계	빈도	144건 (17.7%)	207건 (25.4%)	245건 (30.1%)	218건 (26.8%)	814건 (100.0%)
	시간	2,930분 (11.5%)	6,936분 (27.2%)	7,729분 (30.2%)	7,941분 (31.1%)	25,536분 (100.0%)

〈표 4-16〉 지상파 3사의 남성별 올림픽 중계 종목편성

	KBS1	KBS2	MBC	SBS	합계
유도	9건(2.0%)	12건(2.6%)	17건(3.7%)	18건(3.9%)	56건(12.2%)
	73분(.5%)	237분(1.6%)	252분(1.7%)	231분(1.5%)	793분(5.3%)
수영	11건(2.4%)	16건(3.5%)	19건(4.1%)	17건(3.7%)	63건(13.8%)
	95분(.6%)	390분(2.6%)	355분(2.4%)	371분(2.5%)	1,211분(8.1%)
육상	22건(4.8%)	9건(2.0%)	3건(.7%)	7건(1.5%)	41건(9.0%)
	467분(3.1%)	153분(1.0%)	72분(.5%)	169분(1.1%)	861분(5.7%)
양궁	4건(.9%)	10건(2.2%)	13건(2.8%)	11건(2.4%)	38건(8.3%)
	60분(.4%)	220분(1.5%)	275분(1.8%)	278분(1.8%)	833분(5.5%)
핸드볼	5건(1.1%)	5건(1.1%)	7건(1.5%)	7건(1.5%)	24건(5.2%)
	193분(1.3%)	165분(1.1%)	199분(1.3%)	208분(1.4%)	765분(5.1%)
탁구	5건(1.1%)	6건(1.3%)	9건(2.0%)	6건(1.3%)	26건(5.7%)
	146분(1.0%)	303분(2.0%)	513분(3.4%)	356분(2.4%)	1,318분(8.9%)
야구	3건(.7%)	12건(2.6%)	16건(3.5%)	14건(3.1%)	45건(9.8%)
	24분 (.1%)	1,153분 (7.7%)	1,568분 (10.5%)	1,417분 (9.5%)	4,162분 (28.0%)
기타	1건(.2%)	3건(.7%)	5건(1.1%)	1건(.2%)	10건(2.2%)
	29분(.2%)	65분(.4%)	206분(1.4%)	203분(1.3%)	503분(3.4%)
레슬링	3건(.7%)	10건(2.2%)	11건(2.4%)	12건(2.6%)	36건(7.9%)
	17분(.1%)	129분(.8%)	143분(.9%)	205분(1.4%)	494분(3.3%)
태권도	3건(.7%)	4건(.9%)	3건(.7%)	2건(.4%)	12건(2.6%)
	29분(.2%)	56분(.3%)	47분(.3%)	50분(.3%)	182분(1.2%)
배드민턴	1건(.2%)	5건(1.1%)	7건(1.5%)	7건(1.5%)	20건(4.4%)
	10분(.0%)	190분(1.3%)	294분(2.0%)	179분(1.2%)	673분(4.5%)
체조	4건(.9%)	2건(.4%)	7건(1.5%)	4건(.9%)	17건(3.7%)
	43분(.3%)	47분(.3%)	131분(.9%)	99분(.6%)	320분(2.1%)
펜싱	1건(.2%)	1건(.2%)	1건(.2%)	1건(.2%)	4건(.9%)
	21분(.1%)	15분(.1%)	10분(.0%)	28분(.2%)	74분(.5%)
역도	1건(.2%)	5건(1.1%)	2건(.4%)	-	8건(1.7%)
	4분(.0%)	139분(.9%)	92분(.6%)	-	235분(1.6%)
축구	1건(.2%)	5건(1.1%)	5건(1.1%)	7건(1.5%)	18건(3.9%)
	125분(.8%)	467분(3.1%)	193분(1.3%)	554분(3.7%)	1,339분(9.0%)
농구	2건(.4%)	-	1건(.2%)	1건(.2%)	4건(.9%)
	161분(1.0%)	-	175분(1.2%)	21분(.1%)	357분(2.4%)
하키	-	2건(.4%)	4건(.9%)	3건(.7%)	9건(2.0%)
	-	127분(.8%)	67분(.4%)	110분(.7%)	304분(2.0%)
사격	-	3건(.7%)	6건(1.3%)	4건(.9%)	13건(2.8%)
	-	76분(.5%)	87분(.6%)	107분(.7%)	270분(1.8%)
다이빙	2건(.4%)	1건(.2%)	1건(.2%)	-	4건(.9%)
	41분(.2%)	34분(.2%)	16분(.1%)	-	91분(.6%)
복싱	3건(.7%)	2건(.4%)	2건(.4%)	2건(.4%)	9건(2.0%)
	27분(.2%)	30분(.2%)	28분(.2%)	31분(.2%)	116분(.8%)
비치발리	-	1건(.2%)	-	-	1건(.2%)
	-	41분(.2%)	-	-	41분(.2%)
총합	81건 (17.7%)	114건 (24.9%)	139건 (30.3%)	124건 (27.1%)	458건 (100.0%)
	1,565분 (10.5%)	4,037분 (27.2%)	4,723분 (31.8%)	4,617분 (31.5%)	14,824분 (100.0%)

〈표 4-17〉 지상파 3사의 여성별 올림픽 중계 종목편성

	KBS1	KBS2	MBC	SBS	합계
유도	5건(1.6%)	2건(.6%)	6건(1.9%)	6건(1.9%)	19건(6.2%)
	40분(.4%)	56분(.6%)	46분(.5%)	49분(.6%)	191분(2.2%)
수영	5건(1.6%)	6건(1.9%)	1건(.3%)	1건(.3%)	13건(4.2%)
	56분(.6%)	90분(1.0%)	20분(.2%)	26분(.3%)	192분(2.2%)
육상	15건(4.9%)	7건(2.3%)	3건(1.0%)	3건(1.0%)	28건(9.1%)
	227분(2.6%)	105분(1.2%)	37분(.4%)	100분(1.2%)	469분(5.5%)
양궁	2건(.6%)	8건(2.6%)	12건(3.9%)	11건(3.6%)	33건(10.7%)
	78분(.9%)	297분(3.5%)	328분(3.8%)	298분(3.5%)	1,001분(11.8%)
핸드볼	5건(1.6%)	10건(3.2%)	14건(4.5%)	8건(2.6%)	37건(12.0%)
	67분(.8%)	490분(5.7%)	506분(5.9%)	403분(4.7%)	1,466분(17.2%)
탁구	1건(.3%)	6건(1.9%)	10건(3.2%)	8건(2.6%)	25건(8.1%)
	10분(.1%)	321분(3.7%)	489분(5.7%)	541분(6.3%)	1,361분(15.9%)
기타	1건(.3%)	5건(1.6%)	14건(4.5%)	2건(.6%)	22건(7.1%)
	18분(.2%)	140분(1.6%)	373분(4.4%)	60분(.7%)	591분(7.0%)
레슬링	-	1건(.3%)	-	1건(.3%)	2건(.6%)
	-	13분(.1%)	-	22분(.2%)	35분(.4%)
태권도	-	9건(2.9%)	3건(1.0%)	5건(1.6%)	17건(5.5%)
	-	123분(1.4%)	30분(.3%)	156분(1.8%)	309분(3.6%)
배드민턴	3건(1.0%)	2건(.6%)	4건(1.3%)	2건(.6%)	11건(3.6%)
	38분(.4%)	69분(.8%)	100분(1.2%)	123분(1.4%)	330분(3.8%)
체조	2건(.6%)	3건(1.0%)	1건(.3%)	4건(1.3%)	10건(3.2%)
	106분(1.2%)	93분(1.1%)	23분(.2%)	75분(.9%)	297분(3.5%)
펜싱	6건(1.9%)	2건(.6%)	7건(2.3%)	8건(2.6%)	23건(7.5%)
	107분(1.2%)	69분(.8%)	96분(1.1%)	88분(1.0%)	360분(4.2%)
역도	2건(.6%)	6건(1.9%)	5건(1.6%)	5건(1.6%)	18건(5.8%)
	32분(.4%)	178분(2.1%)	138분(1.6%)	278분(3.2%)	626분(7.4%)
농구	5건(1.6%)	1건(.3%)	3건(1.0%)	4건(1.3%)	13건(4.2%)
	217분(2.5%)	36분(.4%)	92분(1.1%)	164분(1.9%)	509분(6.0%)
하키	3건(1.0%)	1건(.3%)	-	2건(.6%)	6건(1.9%)
	46분(.5%)	27분(.3%)	-	59분(.7%)	132분(1.6%)
다이빙	2건(.6%)	2건(.6%)	1건(.3%)	3건(1.0%)	8건(2.6%)
	46분(.5%)	39분(.4%)	19분(.2%)	45분(.5%)	149분(1.7%)
수중발레	-	4건(1.3%)	2건(.6%)	5건(1.6%)	11건(3.6%)
	-	194분(2.3%)	56분(.6%)	89분(1.0%)	339분(4.0%)
복싱	-	-	1건(.3%)	-	1건(.3%)
	-	-	11분(.1%)	-	11분(.1%)
비치발리	2건(.6%)	3건(1.0%)	-	3건(1.0%)	8건(2.6%)
	40분(.4%)	56분(.6%)	-	71분(.8%)	167분(1.9%)
합계	59건 (19.2%)	78건 (25.3%)	90건 (29.2%)	81건 (26.3%)	308건 (100.0%)
	1,128분 (13.4%)	2,396분 (28.5%)	2,364분 (26.7%)	2,647분 (31.4%)	8,535분 (100.0%)

남성 경기를 종목별로 분석한 결과 유도 56건, 수영 53건, 야구 48건, 육상 41건, 양궁 38건, 핸드볼 24건, 탁구 26건 순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에서는 야구 4,162분, 축구 1,339분, 탁구 1,318분, 수영 1,211분, 육상 861분, 유도 793분, 핸드볼 765분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기는 핸드볼 37건, 양궁 33건, 육상 28건, 탁구 25건, 기타 22건 순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으로는 핸드볼 1,466분, 탁구 1,361분, 양궁 1,001분, 역도 626분, 농구 509분 순이었다.

종목에 따른 성별 중계방송 편성빈도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방송은 성별에 따른 편성보다는 해당 경기의 메달 가능성에 따라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비치발리볼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 선수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확인되었다.

3.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중복편성 현황

1) 일반 중복편성 현황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지상파 3사의 중복 편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생중계 중 14,112분이 중복 편성되었으며, 11,424분은 중복되지 않은 채 단일채널에 의해 중계 방송되었다. 이에 따라 중복편성 시간은 전체의 55.2%에 해당한다.

〈표 4-18〉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비교

	중복편성		단일편성	총합
	2채널 중복편성	3채널 중복편성		
2008 베이징	3,540분(1,770분×2)	10,572분(3,524분×3)	11,424분	25,536분
	13.8%	41.4%	44.8%	100.0%

3채널 중복편성은 78건으로 총 3,524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BS1-MBC-SBS의 중복편성은 9건으로 총 671분, KBS2-MBC-SBS의 중복편성은 69건으로 2,853분으로 나타났다. 2채널 중복편성은 87건으로 1,770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BS1-MBC의 중복편성은 5건으로 총 57분, KBS2-MBC는 29건으로 511분, KBS2-SBS는 22건으로 415분, MBC-SBS는

31건으로 787분으로 나타났다. 단일채널에 의한 비중복 편성은 406건으로 총 11,424분에 해당하였다.

〈표 4-19〉 지상파 3사의 채널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

		중복편성
3채널 중복	KBS1-MBC-SBS	9건(5.4%)/671분(12.7%)
	KBS2-MBC-SBS	69건(41.8%)/2,853분(53.9%)
	합계	78건(47.2%)/3,524분(66.6%)
2채널 중복	KBS1-MBC	5건(3.0%)/57분(1.1%)
	KBS1-SBS	-
	KBS2-MBC	29건(17.6%)/511분(9.6%)
	KBS2-SBS	22건(13.3%)/415분(7.8%)
	MBC-SBS	31건(5.9%)/787분(14.9%)
	합계	87건(52.8%)/1,770분(33.4%)
합계		165건(100.0%)/5,294분(100.0%)

2) 종목별 중복편성 현황

종목별 중복편성을 살펴보면, 양궁이 20건으로 가장 많이 중복 편성된 종목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탁구와 핸드볼이 각 18건, 유도가 16건, 수영이 13건, 레슬링이 12건 중복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복편성 시간을 보면 야구가 총 894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동안 중복편성 되었으며, 탁구가 총 826분으로, 핸드볼이 총 658분, 기타가 584분 중복편성 되었다.

중복편성 빈도에 있어서 유도와 양궁의 중복편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탁구와 핸드볼도 주목해야 할 종목이다. 유도와 양궁은 한국의 전통적 강세 종목으로 대회 초반 금메달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대회 후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복 편성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영 역시 대회 초반 박태환의 연이은 메달 획득으로 많은 중계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중복 편성이 많았다. 탁구와 핸드볼의 경우에는 긴 경기시간으로 말미암아, 경기 도중에 타 경기 중계로 연결되는 횟수가 많아서 전체적인 중복편성의 빈도가 높았다. 게다가 핸드볼의 경우에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 패배를 소재로 한 영화로 인해 시청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방송사들의 중복편성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분석된다.

〈표 4-20〉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K1/M/S	K2/M/S	K1/M	K2/M	K2/S	MS	합계
양궁	2건 (.1.2%)	12건 (7.3%)	-	1건 (.6%)	3건 (1.8%)	2건 (.1.2%)	20건 (12.2%)
탁구	1건 (.6%)	10건 (6.0%)	-	2건 (.1.2%)	2건 (.1.2%)	3건 (1.8%)	18건 (10.9%)
핸드볼	-	10건 (6.0%)	2건 (.1.2%)	4건 (2.4%)	-	2건 (.1.2%)	18건 (10.9%)
유도	1건 (.6%)	4건 (2.4%)	1건 (.6%)	1건 (.6%)	5건 (3.1%)	4건 (2.4%)	16건 (9.7%)
수영	-	4건 (2.4%)	-	6건 (3.6%)	1건 (.6%)	2건 (.1.2%)	13건 (7.9%)
레슬링	-	7건 (4.2%)	-	1건 (.6%)	2건 (.1.2%)	2건 (.1.2%)	12건 (7.3%)
야구	-	6건 (3.6%)	-	2건 (.1.2%)	1건 (.6%)	1건 (.6%)	10건 (6.1%)
배드민턴	-	2건 (.1.2%)	2건 (.1.2%)	3건 (1.8%)	1건 (.6%)	2건 (.1.2%)	10건 (6.1%)
태권도	-	6건 (3.6%)	-	1건 (.6%)	2건 (.1.2%)	-	9건 (5.4%)
역도	-	3건 (1.8%)	-	2건 (.1.2%)	-	1건 (.6%)	6건 (3.6%)
축구	1건 (.6%)	1건 (.6%)	-	1건 (.6%)	2건 (.1.2%)	-	5건 (3.1%)
펜싱	1건 (.6%)	-	-	1건 (.6%)	-	3건 (1.8%)	5건 (3.0%)
농구	-	1건 (.6%)	-	-	1건 (.6%)	2건 (.1.2%)	4건 (2.4%)
기타	3건 (1.8%)	-	-	1건 (.6%)	-	-	4건 (2.4%)
육상	-	-	-	1건 (.6%)	1건 (.6%)	1건 (.6%)	3건 (1.8%)
체조	-	1건 (.6%)	-	1건 (.6%)	-	1건 (.6%)	3건 (1.8%)
수중발레	-	1건 (.6%)	-	-	-	2건 (.1.2%)	3건 (1.8%)
사격	-	1건 (.6%)	-	-	-	1건 (.6%)	2건 (1.2%)
하키	-	-	-	1건 (.6%)	1건 (.6%)	-	2건 (1.2%)
다이빙	-	-	-	-	-	1건 (.6%)	1건 (.6%)
복싱	-	-	-	-	-	1건 (.6%)	1건 (.6%)
합계	9건 (5.4%)	69건 (41.8%)	5건 (3.1%)	29건 (17.6%)	22건 (13.3%)	31건 (18.8%)	165건 (100.0%)

〈표 4-21〉 지상파 3사의 종목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

	K1/M/S	K2/M/S	K1/M	K2/M	K2/S	M/S	합계
야구	-	838분 (15.8%)	-	31분 (.6%)	8분 (.1%)	17분 (.3%)	894분 (17.0%)
탁구	38분 (.7%)	497분 (9.4%)	-	18분 (.3%)	53분 (1.0%)	220분 (4.1%)	826분 (15.7%)
핸드볼	-	536분 (10.1%)	22분 (.4%)	73분 (1.4%)	-	27분 (.5%)	658분 (12.5%)
기타	543분 (10.4%)	-	-	41분 (.2%)	-	-	584분 (10.7%)
양궁	66분 (1.2%)	379분 (7.1%)	-	15분 (.3%)	39분 (.7%)	34분 (.6%)	533분 (10.0%)
배드민턴	-	80분 (1.5%)	26분 (.5%)	83분 (1.6%)	50분 (1.0%)	100분 (1.9%)	339분 (6.6%)
수영	-	75분 (.9%)	-	102분 (1.9%)	26분 (.5%)	25분 (.5%)	228분 (3.9%)
역도	-	54분 (1.0%)	-	31분 (.6%)	-	122분 (2.3%)	207분 (3.9%)
유도	11분 (.2%)	89분 (1.7%)	9분 (.2%)	4분 (.1%)	42분 (.8%)	38분 (.7%)	193분 (3.8%)
태권도	-	127분 (2.4%)	-	12분 (.2%)	18분 (.3%)	-	157분 (2.9%)
레슬링	-	87분 (1.6%)	-	10분 (.2%)	23분 (.4%)	25분 (.5%)	145분 (2.8%)
축구	11분 (.2%)	10분 (.2%)	-	6분 (.1%)	72분 (1.4%)	-	99분 (1.9%)
체조	-	15분 (.3%)	-	20분 (.4%)	-	34분 (.6%)	69분 (1.3%)
농구	-	17분 (.3%)	-	-	29분 (.6%)	20분 (.4%)	66분 (1.3%)
하키	-	-	-	30분 (.6%)	35분 (.7%)	-	65분 (1.3%)
육상	-	-	-	5분 (.1%)	20분 (.4%)	30분 (.6%)	55분 (1.1%)
펜싱	2분 (.0%)	-	-	30분 (.6%)	-	20분 (.4%)	52분 (1.0%)
수중발레	-	25분 (.5%)	-	-	-	22분 (.4%)	47분 (.9%)
사격	-	24분 (.4%)	-	-	-	18분 (.3%)	42분 (.8%)
다이빙	-	-	-	-	-	18분 (.3%)	18분 (.3%)
복싱	-	-	-	-	-	17분 (.3%)	17분 (.3%)
합계	671분 (12.7%)	2,853분 (53.9%)	57분 (1.1%)	511분 (9.6%)	415분 (7.8%)	787분 (14.9%)	5,294분 (100.0%)

반면 중복편성 시간에 있어서 야구, 탁구, 핸드볼과 같이 경기시간이 긴 종목들이 가장 많이 중복되었다. 특히 야구는 경기시간이 3시간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지상파 3사 모두가 중복 편성하였다. 이 밖에 기타의 중복편성 시간이 많은 것은 해당 항목에 개회식과 폐회식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3) 한국 관련 중복편성 현황

한국 관련 중복편성에 있어서 채널과 종목별 현황을 상위 10대 종목으로 살펴보았더니 중복 편성비율이 높은 종목은 양궁 20건(16.7%), 탁구 18건(15.0%), 핸드볼 18건(15.0%), 유도 16건(13.3%), 배드민턴 10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채널간 중복은 KBS2-MBC-SBS가 양궁에서 12건(10.0%), 탁구와 핸드볼이 각각 10건씩(8.3%)이었고, KBS1-MBC-SBS는 양궁 2건(1.6%)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상파 3사가 한국 관련 종목만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채널 간 차별성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중복편성의 대다수가 한국 관련 중계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서울올림픽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점을 비춰볼 때 한국 대표의 경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지상파 3사가 이를 반영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역으로 중복편성의 대부분이 한국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바라보는 지상파 3사의 편성이 지나치게 국가주의와 성적주의에 치우쳐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올림픽이 전 인류의 축제라는 점과 이번 올림픽에서 볼트, 펠프스, 미국 농구대표팀 등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경기가 어느 대회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 위주의 중복편성은 시청자의 다양한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4-22〉 지상파 3사의 종목별 비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

	K2/M/S	K2/M	K2/S	M/S	합계
야구	-	1건(8.3%)	-	-	1건(8.3%)
	-	21분(11.2%)	-	-	21분(11.2%)
수영	-	2건(16.7%)	-	2건(16.7%)	4건(33.3%)
	-	19분(10.1%)	-	25분(13.2%)	44분(23.3%)
육상	-	1건(8.3%)	1건(8.3%)	1건(8.3%)	3건(25.0%)
	-	5분(2.6%)	20분(10.6%)	30분(15.9%)	55분(29.2%)
체조	1건(8.3%)	-	-	-	1건(8.3%)
	15분(8.0%)	-	-	-	15분(8.0%)
다이빙	-	-	-	1건(8.3%)	1건(8.3%)
	-	-	-	18분(9.5%)	18분(9.5%)
수중 발레	1건(8.3%)	-	-	1건(8.3%)	2건(16.7%)
	25분(13.3%)	-	-	10분(5.3%)	35분(18.4%)
합계	2건(16.7%)	4건(33.3%)	1건(8.3%)	5건(4.7%)	12건(100.0%)
	40분(21.3%)	45분(23.9%)	20분(10.6%)	83분(44.0%)	188분(100.0%)

<표 4-23> 지상파 3사의 종목별 한국 관련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수 상위10대 종목)

	양궁	탁구	핸드볼	유도	배드민턴	야구	태권도	수영	역도	펜싱	합계
K1/M/S	2건 (1.6%)	1건 (.8%)	-	1건 (.8%)	-	-	-	-	-	1건 (.8%)	5건 (4.2%)
	66분 (1.6%)	38분 (0.9%)	-	11분 (0.3%)	-	-	-	-	-	2분 (.0%)	117분 (2.9%)
K2/M/S	12건 (10.0%)	10건 (8.3%)	10건 (8.3%)	4건 (3.3%)	2건 (1.6%)	6건 (5.0%)	6건 (5.0%)	4건 (3.3%)	3건 (2.5%)	-	57건 (47.5%)
	379분 (9.4%)	497분 (12.3%)	536분 (13.3%)	89분 (2.2%)	80분 (1.9%)	838분 (20.8%)	127분 (3.1%)	75분 (1.8%)	54분 (1.3%)	-	2,675분 (66.4%)
K1/M	-	-	2건 (1.6%)	1건 (.8%)	2건 (1.6%)	-	-	-	-	-	5건 (4.2%)
	-	-	22분 (.5%)	9분 (.2%)	26분 (.6%)	-	-	-	-	-	57분 (1.4%)
K2/M	1건 (.8%)	2건 (1.6%)	4건 (3.3%)	1건 (.8%)	3건 (2.5%)	1건 (.8%)	1건 (.8%)	4건 (3.3%)	2건 (1.6%)	1건 (.8%)	20건 (16.7%)
	15분 (.4%)	18분 (.4%)	73분 (1.8%)	4분 (.1%)	83분 (2.0%)	10분 (.2%)	12분 (.3%)	83분 (2.0%)	31분 (.8%)	30분 (.7%)	359분 (8.9%)
K2/S	3건 (2.5%)	2건 (1.6%)	-	5건 (4.2%)	1건 (.8%)	1건 (.8%)	2건 (1.6%)	1건 (.8%)	-	-	15건 (12.36%)
	39분 (1.0%)	53분 (1.3%)	-	42분 (1.0%)	50분 (1.2%)	8분 (.2%)	18분 (.4%)	26분 (.6%)	-	-	236분 (5.9%)
M/S	2건 (1.6%)	3건 (2.5%)	2건 (1.6%)	4건 (3.3%)	2건 (1.6%)	1건 (.8%)	-	-	1건 (.8%)	3건 (2.5%)	18건 (14.8%)
	34분 (.8%)	220분 (5.4%)	27분 (.7%)	38분 (.9%)	100분 (2.5%)	17분 (.4%)	-	-	122분 (3.0%)	20분 (.5%)	578분 (14.4%)
합계	20건 (16.7%)	18건 (15.0%)	18건 (15.0%)	16건 (13.3%)	10건 (8.3%)	9건 (7.5%)	9건 (7.5%)	9건 (7.5%)	6건 (5.0%)	5건 (4.2%)	120건 (100.0%)
	533분 (13.2%)	826분 (20.5%)	658분 (16.3%)	193분 (4.8%)	339분 (8.4%)	873분 (21.7%)	157분 (3.9%)	184분 (4.6%)	207분 (5.2%)	52분 (1.3%)	4,022분

4) 경기종류별 중복편성 현황

메달과 관련이 없는 경기 중계방송의 경우 핸드볼 15건, 양궁 13건, 탁구 11건, 레슬링 10건 순, 유도 9건 순으로 나타났고 KBS2-MBC-SBS에서 핸드볼을 중계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표 4-24〉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비메달관련)

	K1/M/S	K2/M/S	K1/M	K2/M	K2/S	M/S	합계
핸드볼	-	8건 (8.4%)	1건 (1.0%)	4건 (4.2%)	-	2건 (2.1%)	15건 (15.9%)
양궁	1건 (1.0%)	6건 (6.3%)		1건 (1.0%)	3건 (3.1%)	2건 (2.1%)	13건 (13.7%)
탁구	1건 (1.0%)	7건 (7.4%)		-	1건 (1.0%)	2건 (2.1%)	11건 (11.6%)
레슬링		6건 (6.3%)		1건 (1.0%)	2건 (2.1%)	1건 (1.0%)	10건 (10.6%)
유도	1건 (1.0%)	-		-	4건 (4.2%)	4건 (4.2%)	9건 (9.5%)
야구	-	4건 (4.2%)		1건 (1.0%)	1건 (1.0%)	-	6건 (6.3%)
수영	-	1건 (1.0%)		4건 (4.2%)	1건 (1.0%)	-	6건 (6.3%)
축구	1건 (1.0%)	1건 (1.0%)		1건 (1.0%)	2건 (2.1%)	-	5건 (5.2%)
펜싱	1건 (1.0%)	-		-	-	3건 (3.1%)	4건 (4.2%)
농구	-	1건 (1.0%)		-	1건 (1.0%)	2건 (2.1%)	4건 (4.2%)
기타	2건 (2.1%)	-		1건 (1.0%)	-	-	3건 (3.1%)
태권도	-	1건 (1.0%)		1건 (1.0%)	-	-	2건 (2.1%)
육상	-	-		-	1건 (1.0%)	1건 (1.0%)	2건 (2.1%)
배드민턴	-	-	1건 (1.0%)	1건 (1.0%)	-	-	2건 (2.1%)
하키	-	-		1건 (1.0%)	1건 (1.0%)	-	2건 (2.1%)
수중발레	-	1건 (1.0%)		-	-	-	1건 (1.0%)
합계	7건 (7.3%)	36건 (37.9%)	2건 (2.1%)	16건 (16.9%)	17건 (17.9%)	17건 (17.9%)	95건 (100.0%)

메달과 관련 있는 경기의 중복편성에서는 배드민턴 8건, 유도 7건, 양궁 7건, 탁구 7건, 수영 7건, 태권도 7건 순으로 나타났고 KBS2-MBC-SBS가 양궁 6건, 태권도 5건, 유도 4건으로 중복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 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빈도(메달관련)

	K1/M/S	K2/M/S	K1/M	K2/M	K2/S	M/S	합계
배드민턴	-	2건 (2.8%)	1건 (1.4%)	2건 (2.8%)	1건 (1.4%)	2건 (2.8%)	8건 (11.5%)
유도	-	4건 (5.8%)	1건 (1.4%)	1건 (1.4%)	1건 (1.4%)	-	7건 (10.0%)
양궁	1건 (1.4%)	6건 (8.6%)		-	-	-	7건 (10.0%)
탁구	-	3건 (4.3%)		2건 (2.8%)	1건 (1.4%)	1건 (1.4%)	7건 (10.0%)
수영	-	3건 (4.3%)		2건 (2.8%)	-	2건 (2.8%)	7건 (10.0%)
태권도	-	5건 (7.2%)		-	2건 (2.8%)	-	7건 (10.0%)
역도	-	3건 (4.3%)	-	2건 (2.8%)	-	1건 (1.4%)	6건 (8.6%)
야구	-	2건 (2.8%)		1건 (1.4%)	-	1건 (1.4%)	4건 (5.8%)
체조		1건 (1.4%)		1건 (1.4%)		1건 (1.4%)	3건 (4.3%)
핸드볼	-	2건 (2.8%)	1건 (1.4%)	-	-	-	3건 (4.3%)
레슬링	-	1건 (1.4%)		-	-	1건 (1.4%)	2건 (2.8%)
사격		1건 (1.4%)				1건 (1.4%)	2건 (2.8%)
수중발레	-	-		-	-	2건 (2.8%)	2건 (2.8%)
육상	-	-		1건 (1.4%)	-	-	1건 (1.4%)
펜싱	-	-		1건 (1.4%)	-	-	1건 (1.4%)
복싱	-	-		-	-	1건 (1.4%)	1건 (1.4%)
다이빙						1건 (1.4%)	1건 (1.4%)
기타	1건 (1.4%)	-		-	-	-	1건 (1.4%)
합계	2건 (2.8%)	33건 (47.2%)	3건 (4.3%)	13건 (18.5%)	5건 (7.2%)	14건 (20.0%)	70건 (100.0%)

비메달관련 3채널 중복편성은 총 43건으로 분석되었는데, KBS1-MBC-SBS는 총 7건, KBS2-MBC-SBS는 총 36건을 차지하였다. 2채널 중복편성은 총 52건으로, KBS2-MBC는 총 16건, KBS2-SBS와 MBC-SBS는 총 17건이 분석되었다. 메달관련 3채널 중복편성은 총 35건으로 나타났으며, KBS1-MBC-SBS는 총 2건, KBS2-MBC-SBS는 총 33건으로 분석되었다. 2채널 중복편성은 총 35건으로 나타났으며, KBS2-MBC는 총 13건, KBS2-SBS는 총 5건, MBC-SBS는 총 14건으로 분석되었다.

〈표 4-26〉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비메달관련)

	K1/M/S	K2/M/S	K1/M	K2/M	K2/S	M/S	합계
야구	-	593분 (20.1%)		10분 (.3%)	8분 (.2%)	-	611분 (20.8%)
탁구	38분 (1.3%)	385분 (13.1%)		-	20분 (.6%)	94분 (3.2%)	537분 (18.4%)
핸드볼	-	347분 (11.8%)	22분 (.7%)	73분 (2.5%)	-	27분 (.9%)	469분 (16.1%)
기타	340분 (11.5%)	-		41분 (1.4%)	-	-	381분 (13.0%)
양궁	15분 (.5%)	129분 (4.3%)		15분 (.5%)	38분 (1.3%)	34분 (1.1%)	232분 (7.9%)
레슬링		72분 (2.4%)		10분 (.3%)	23분 (.8%)	16분 (.5%)	121분 (4.2%)
수영	-	12분 (.4%)		62분 (2.1%)	26분 (.8%)	-	100분 (3.4%)
축구	11분 (.3%)	10분 (.3%)		6분 (.2%)	72분 (2.4%)	-	99분 (3.3%)
유도	11분 (.3%)	-	9분 (.3%)	-	32분 (1.0%)	38분 (1.3%)	90분 (3.0%)
농구	-	17분 (.5%)		-	29분 (1.0%)	20분 (.6%)	66분 (2.2%)
하키	-	-		30분 (1.0%)	35분 (1.2%)	-	65분 (2.2%)
육상	-	-		-	20분 (.6%)	30분 (1.0%)	50분 (1.7%)
배드민턴	-	-	26분 (.8%)	23분 (.7%)	-	-	49분 (1.6%)
수중발레	-	25분 (.8%)		-	-	-	25분 (.8%)
태권도	-	12분 (.4%)		12분 (.4%)	-	-	24분 (.8%)
펜싱	2분 (.1%)	-		-	-	20분 (.6%)	22분 (.7%)
합계	417분 (14.1%)	1,602분 (54.5%)	57분 (1.9%)	282분 (9.6%)	304분 (10.4%)	279분 (9.5%)	2,941분 (100.0%)

메달 관련성 중복편성 시간을 살펴보면 메달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기는 총 2,353분으로, 메달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기인 예선전, 32강전, 16강전, 8강전들은 2,941분으로 나타났다. 메달 관련 3채널 중복편성은 1,505분으로, KBS1-MBC-SBS가 254분, KBS2-MBC-SBS는 1,251분으로 분석되었다. 2채널 중복편성은 844분으로, KBS2-MBC는 229분, KBS2-SBS는 129분, MBC-SBS는 490분으로 분석되었다. 메달비관련 3채널 중복편성은 2,019분으로, KBS1-MBC-SBS는 417분, KBS2-MBC-SBS는 1,602분으로 분석되었다. 2채널 중복편성은 855분으로, KBS1-MBC는 57분, KBS2-MBC는 282분, KBS2-SBS는 304분, MBC-SBS는 279분으로 분석되었다.

경기 종류별 중복편성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메달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기에 대한 중복편성이 메달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기보다 약간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종목 별 중복편성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구, 탁구, 핸드볼 등 상대적으로 예선전 경기가 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경기들 보다 많았던 점에서 비롯되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지상파 3사의 중복편성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특정 부분에 치우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채널별로는 KBS2-MBC-SBS의 중복편성이 다른 경우보다 많았던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KBS가 두 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KBS2-MBC-SBS의 중복편성은 모든 방송이 동일한 중계에 집중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모든 채널의 '올림픽 전문채널화'는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오히려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이외의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중복편성의 내용 역시 지나치게 한국위주의 특정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올림픽은 전 인류의 축제로서 세계적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는 다양한 선수와 종목을 보여주지 못하고, 메달가능성이나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특정 종목의 한국 대표선수들을 중계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대규모 방송단을 현지에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선수의 경기를 동시에 중계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볼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표 4-27〉 지상파 3사의 경기종류 별 올림픽 중계 중복편성시간(메달관련)

	K1/M/S	K2/M/S	K1/M	K2/M	K2/S	M/S	합계
양궁	51분 (2.1%)	250분 (10.6%)	-	-	-	-	301분 (12.8%)
배드민턴	-	80분 (3.4%)	-	60분 (2.5%)	50분 (2.1%)	100분 (4.3%)	290분 (12.5%)
탁구	-	112분 (4.7%)	-	18분 (.7%)	33분 (1.4%)	126분 (5.4%)	289분 (12.3%)
야구	-	245분 (10.4%)	-	21분 (.9%)	-	17분 (.7%)	283분 (12.1%)
역도	-	54분 (2.3%)	-	31분 (1.3%)	-	122분 (5.2%)	207분 (8.9%)
기타	203분 (8.7%)	-	-	-	-	-	203분 (8.7%)
핸드볼	-	189분 (8.0%)	-	-	-	-	189분 (8.0%)
태권도	-	115분 (4.9%)	-	-	18분 (.7%)	-	133분 (5.7%)
수영	-	63분 (2.7%)	-	40분 (1.7%)	-	25분 (1.1%)	128분 (5.6%)
유도	-	89분 (3.8%)	-	4분 (.1%)	10분 (.4%)	-	103분 (4.3%)
체조	-	15분 (.6%)	-	20분 (.8%)	-	34분 (1.4%)	69분 (2.9%)
사격	-	24분 (1.0%)	-	-	18분 (.7%)	-	42분 (1.7%)
펜싱	-	-	-	30분 (1.3%)	-	-	30분 (1.3%)
레슬링	-	15분 (.6%)	-	-	-	9분 (.4%)	24분 (1.0%)
수중발레	-	-	-	-	-	22분 (.8%)	22분 (.8%)
다이빙	-	-	-	-	-	18분 (.7%)	18분 (.7%)
복싱	-	-	-	-	-	17분 (.7%)	17분 (.7%)
육상	-	-	-	5분 (.2%)	-	-	5분 (.2%)
합계	254분 (10.8%)	1,251분 (53.2%)	-	229분 (9.7%)	129분 (5.5%)	490분 (20.8%)	2,353분

제5장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1)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일반편성 현황

① 올림픽 중계방송 빈도 및 시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지상파방송 3사의 중계방송 시간과 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지상파방송 3사의 중계방송 시간은 총 25,536분(814건)이었다. 이는 방송사별 일일 평균 7~8시간 올림픽 중계방송을 편성했다는 의미이며 이번 분석이 하이라이트, 뉴스 보도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순수한 중계방송만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올림픽 기간 내내 지상파방송이 거의 스포츠 전문채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널별 방송시간으로는 SBS 7,941분, MBC 7,729분, KBS2 6,936분, KBS1 2,930분으로 SBS-MBC-KBS2-KBS1 순이었으나 KBS1,2 두 채널을 합치면 KBS가 가장 많은 중계방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채널별 빈도건수로는 MBC 245건(30.1%), SBS 218건(26.8%), KBS2 207건(25.4%), KBS1 144건(17.7%) 순으로 나타났으나 KBS 1,2를 합치면 총 351건(43.1%)이다.

② 종목별 편성

올림픽 28개 종목(세부경기 302개) 중 지상파방송 3사는 모두 25개 종목을 중계방송 한 것으로 나타났다(요트, 조정, 승마 제외). 편성빈도별로는 유도(85건/10.4%), 수영(82건/10.1%), 육상(72건/8.8%), 양궁(71건/8.7%), 핸드볼(61건/7.5%), 탁구(52건/6.4%), 야구(48건/5.9%) 순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별로는 야구(4,162분/16.2%), 탁구(2,971분/10.9%), 핸드볼(2,231분/8.7%), 양궁(1,834분/7.1%), 수영(1,504분/5.8%), 육상(1,387분/5.4%), 축구(1,339분/5.2%) 순이었다.

편성빈도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한 유도, 수영, 육상 등은 경기 시간이 짧은 경우, 체급별처럼 한 종목에서 대회가 많이 열리는 경우가 해당되었고 편성시간 순위는 구기종목처럼 경기시간이 긴 경우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편성빈도나 편성시간 측면에서 모두 동일한 점은 양궁, 수영, 야구, 핸드볼 등이 높은 순위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금메달 가능성이 희박했던 탁구나 육상 중계방송의 편성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해 특기할 만하다. 탁구는 당시 국내 금메달 획득이 소강 상태였던 점에서, 육상은 이신바예바와 우사인 볼트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했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다.

③ 한국 관련 편성 현황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은 한국 관련 경기 편성을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 베이징 올림픽 중계 814건 중 한국 관련 방송 편성은 654건으로 전체 베이징 올림픽 중계의 80.3%를 차지했다. 방송시간은 총 25,536분 중 한국 관련이 21.774분으로 85.3%를 차지했다. 채널별 전체 중계방송시간 중 한국 관련 경기 중계방송 시간을 분석한 결과 MBC는 90.1%(6,964분), SBS 88.0%(6,991분), KBS2 81.1%(5,625분), KBS1 2,194분(74.8%)으로 나타났다. 올림픽이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국내 방송의 한국 위주의 중계방송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인류의 스포츠 제전이라는 올림픽에 대한 중계가 지나치게 한국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과 관련 없는 경기의 중계방송을 종목별로 분석했더니 육상, 수영, 체조, 수중발레, 다이빙, 비치발리볼, 축구, 야구, 유도, 농구, 배드민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빈도건수별로 분석한 결과 육상(46건), 수영(34건), 체조(13)건, 수중발레(12건), 다이빙(6건) 순으로 나타났고, 편성시간별로는 육상(818분), 수영(506분), 축구(412분), 체조(382분), 수중발레(365분), 농구(326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 없는 경기로 축구, 야구, 수영, 유도 등이 포함된 것은 한국이 출전한 경기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이 출전하지 않은 경기로 다이빙, 수중발레, 비치발리볼 등의 종목을 편성한 것은 신체노출이 많은 경기라는 점에서 선정주의적인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경기 종류별 편성 현황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중계방송을 메달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여 경기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 메달 관련성에 따른 중계방송 편성 현황을 분석하였더니 빈도 건수에 있어서는 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 395건(48.6%), 메달과 관련 있는 경기 404건(49.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송시간에 있어서는 메달 관련 없는 경기 11,957분(46.8%), 메달 관련 있는 경기 12,299분(48.1%)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예선 토너먼트가 메달과 관련된 경기가 많다. 메달 관련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에 대한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은 한국의 특정 종목에 집중한 편성과 맞물려 있다. 즉 메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메달 획득이 유력한 경기를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⑤ 방송 종류별 편성현황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은 생중계 605건(74.3%), 녹화중계 209건(25.7%)이었다.

KBS2, MBC, SBS는 전체 중계방송의 80% 전후를 생중계로 편성한 반면, KBS1은 녹화중계가 총 78건을 전체 중계방송의 54.2%로 편성하여 타 채널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KBS2, MBC, SBS가 주로 한국 위주의 메달 종목에 집중한 반면, KBS1은 육상과 수영과 같은 올림픽 전반에 걸친 주요 경기를 편성한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KBS2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KBS1의 차별성이 나타났다.

⑥ 성별 편성현황

지상파 3사의 성별 올림픽 중계방송 남성 관련 편성 건수는 458건(56.3%), 여성 관련 편성 건수는 308건(37.8%), 혼성 경기 편성이 48건(5.9%)을 차지하였다. 편성시간으로는 남성 관련 중계가 14,824분(58.1%), 여성 관련 중계가 8,535분(33.4%), 혼성 관련 중계가 2,117분(8.5%)이었다.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은 종목으로 수중발레(여성 11건)가 여성 경기만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치발리(남성 1건, 여성 8건), 다이빙(남성 4건, 여성 8건) 종목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선수의 경기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중복편성 현황

경기가 개최되는 시각 생중계되었던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중복편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이하 분석결과에서는 녹화 중계방송분은 제외되었다.

① 일반 중복편성 현황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중복편성 시간은 14,112분(55.2%)이었고 단일편성은 11,424분(44.8%)이었다. 이러한 중복편성 시간에는 2개 채널 중복편성과 3개 채널 중복편성이 합해진 수치인데 이를 다시 구분하면 2개 채널 중복편성은 3,540분(13.8%), 3개 채널 중복 편성은 10,572분(41.4%)으로 나타나 중복편성의 경우 2개 채널보다 3개 채널 중복 편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개 채널 중복편성 건수는 78건 중 KBS2-MBC-SBS 69건(2,853분), KBS1-MBC-SBS 9건(671분)으로 나타났다. 2채널 중복편성 건수는 87건(1,770분) 중 MBC-SBS는 31건(787분), KBS2-MBC는 29건(511분), KBS2-SBS는 22건(415분), KBS1-MBC의 중복편성은 5건(57분)으로 나타났다.

② 종목별 중복편성 현황

종목별 중복편성 건수를 살펴보면, 양궁(20건), 탁구(18건씩), 유도(16건), 수영(13건), 레슬링(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중복편성 시간에서는 야구(1,079분), 탁구(826분), 핸드볼(639분), 양궁(533분)순이었다.

유도와 양궁은 한국의 전통적 강세 종목으로 대회 초반 금메달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수영은 박태환에 대한 메달 획득 기대, 핸드볼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 패배를 소재로 한 영화로 인해 중복편성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복편성 시간에 있어서 야구, 탁구, 핸드볼과 같이 경기시간이 긴 종목들이 가장 많이 중복되었다. 특히 야구는 경기시간이 3시간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지상파 3사 모두가 중복 편성하였다.

③ 한국 관련 중복편성 현황

한국관련 중복편성에 있어서 채널별로 KBS2-MBC-SBS의 중복편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양궁이 12건으로 가장 많이 중복편성 되었다. 그리고 시간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야구가 838분 중복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상파 3사가 한국 관련 경기만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채널 간 차별성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서울올림픽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점을 비춰볼 때 한국 대표의 경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지상파 3사가 이를 반영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역으로 중복편성의 대부분이 한국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을 바라보는 지상파 3사의 편성이 지나치게 국가주의와 성적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④ 경기종류별 메달관련성 중복편성 현황

경기종류별 메달관련성 중복편성을 살펴보면 메달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기인 결승전, 결선전, 준결승전, 동메달 결정전들의 중복편성 건수는 70건, 메달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기인 예선전, 32강전, 16강전, 8강전의 중복 편성건수는 95건을 차지하였다. 메달 관련성 중복편성 시간을 살펴보면 메달과 관련이 있는 경기는 총 2,353분, 메달과 관련이 없는 경기는 총 2,941분을 차지하였다.

2. 정책 제언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즉 우리가 미리 예측했던 것처럼 중복편성의 문제점이나 금메달 위주의 경기만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물론 일본의 사례처럼 중복편성이 제로인 것이 편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상적이겠지만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조건이 일본과 매우 상이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복편성 시간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금메달 위주의 경기만 집중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 역시 금메달 관련 있는 경기와 금메달과 관련 없는 경기가 수치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다양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서 양적 과다, 인기종목 편중, 국수주의적 성향, 선정성 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축제이기는 하지만 올림픽 기간 내내 국내 지상파방송 3사가 동일하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올림픽 중계방송에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번 분석에서 스포츠 뉴스, 올림픽 특집 프로그램 편성 등이 제외하고 순수한 중계방송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올림픽 방송기간 채널별 일일 7~8시간을 편성했다는 것은 아무리 국민적 관심행사인 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양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치우쳐진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뿐 아니라 드라마, 오락, 다큐멘터리 등 다른 장르를 선호하는 시청자 집단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시청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시간만큼 정규 프로그램은 결방되거나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올림픽 중계방송의 전체 방송시간이나 빈도를 향후 다소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상파방송이 올림픽 중계방송의 과열이나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방송시간과 빈도를 줄이고 그 대신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지상파방송의 역할에 걸맞도록 양적 서비스보다는 유료 스포츠 전문채널과 차별화된 편성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방송뿐 아니라 케이블, 위성 등에 스포츠 전문채널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지상파방송만이 할 수 있고 공적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올림픽 종목이나 분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종목에는 반드시 인기 있는 종목, 한국과 관련된 경기, 메달 위주 경기 등이 아니라 유료매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나 국적을 떠나 세계인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아마추어 경기의 올림픽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중계방송이 지나치게 인기위주의 종목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편중편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편성빈도별로 유도, 수영, 육상, 양궁, 핸드볼, 탁구, 야구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편성시간별로는 야구, 탁구, 핸드볼, 양궁, 수영, 육상, 축구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탁구, 야구, 핸드볼 등 경기시간이 긴 구기종목이 빈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거나 경기시간이 짧은 수영, 육상 등이 편성시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경기시간이 긴 구기종목이 많은 빈도까지 차지함으로써 얼마나 무리한 편성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경기시

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편성시간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반복적으로 편성했을지 편중편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셋째, 올림픽 종목 28개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지상파방송은 25개 종목을 중계방송함으로써 다양한 종목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만큼은 소외되는 종목이 없이 중계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소외된 요트, 조정, 승마 경기는 비인기 종목으로 중계방송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스포츠 전문채널 등 유료매체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파방송이 올림픽 종목을 고르게 포함하여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중복편성이나 편중편성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종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의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넷째, 국내 지상파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국수주의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시간 중 한국 관련 편성이 85.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은 물론 어떤 채널의 경우 90%인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 수치에는 한국이 경기자로 출전한 경우만 포함되었고 한국과 관련 있지만 한국이 경기자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한국 관련 경기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간 경기에서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여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조시키면 국민들의 몰입도는 높아지고 결국 스포츠에 정치적 개입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에 의해 곧잘 올림픽 승리자는 국민적 영웅이 된다.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승리지상주의는 스포츠의 본질적 왜곡과 기능적인 변질을 가져온다. 스포츠는 민족주의적이거나 국가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지상파방송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상품화 논리에 철저히 지배받고 있는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한국 경기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경기도 중계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공적 역할을 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올림픽 중계방송에 있어 성적 차별성이나 선정성이 엿보이는 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의 편성에서는 한국 관련성이 주요한 변수였으나 한국과 관련 없는 종목을 편성할 때 여성 경기에

서 수중발레, 비치발리볼, 다이빙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는 스포츠 중계방송에 있어 선정성과 여성의 상품화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편성은 방송경영이라는 내부적 조건뿐 아니라 법제도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올림픽 중계방송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방송편성은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의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기관은 올림픽 중계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공표로 방송사가 자율 교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방송법 규정은 순차편성에 대한 권고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법 시행 후 첫 번째 치러진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중계방송에 대한 관심이 방송사 내외적으로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방송법 내 순차편성 관련 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법적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권고조항이더라도 법률로써 정해진 조항이므로 방송사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수 있다. 결국 법적 강제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압력, 여론의 주시, 규제 강화 가능성 등이 지상파방송사로 하여금 올림픽 개최 전 합의사항을 발표함으로써 순차편성 의지를 조금이나마 보이는 노력을 하게 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행 방송법의 권고조항이 법적 강제력에서 취약점을 보이기는 하지만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번 올림픽 때마다 중계방송 편성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방송사로 하여금 자각하고, 자율 교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둘째,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에 대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와 이를 공표함으로써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반복적인 문제점 노출과 개선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순차편성에 관한 권고안은 올림픽 중계방송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작업을 전제로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고안 역시 법적 강제가 아니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향후 평가제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은 경제 논리와 시장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무조건 방송사에 공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외부 조건을 개선해주는 방식이 중복편성이나 과다한 편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방송사들이 채널 간 중복 편성이나 채널 내 과다한 양적 편성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수익성에 기반한다. 따라서 수익 측면에서 과다한 경비 부문을 줄여줄 수 있다면 방송사 입장에서도 편성의 다양성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 중복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환경 개선에는 과다한 올림픽 중계권료와 광고제도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과다한 경비의 상당 부분은 급증하고 있는 고액의 중계권료이고 이는 IOC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업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비단 국내 방송사만 처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가까운 일본과 우리는 매우 상이하다. JC(Japan Consortium)는 공민영방송이 합심하여 중계권 협상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까지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국익이나 시청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다. 반면 국내 KP(Korea Pool)는 겉모양은 JC와 유사하지만 과거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파행 운영된 바 있다.

따라서 고액의 중계권료를 비롯해 국제 스포츠기구와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고 다시 중계방송 편성까지 합의할 수 있도록 국내 KP(Korea Pool) 운영의 정상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제도 특성에 따라 올림픽 중계방송의 중복편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즉 현행 방식처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광고비가 일정부분 제한되어 있다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편성하는 게 이익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사가 편성을 포기하면 그만큼의 수익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송광고 판매방식은 한 방송사가 중계방송 편성을 포기하면 다른 방송사가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손실분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각 방송사가 순차적으로 편성을 해도 중복편성을 할 때와 동일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방송사들이 전략적으로 순차편성을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지상파방송의 채널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번 베이징 올림픽 편성에서 KBS1의 차별화 편성은 두드러졌다. 전체 편성시간, 종목, 중복편성 등에서 다른 채널과 차별성을 보였다. 물론 KBS1

의 차별화 편성은 공영방송 KBS가 가용할 수 있는 두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편성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이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방송사의 채널일 경우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채널별 동일하게 중계방송을 하기보다는 각 채널별 이미지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여 차별화 편성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다매체 다채널 경쟁상황에서 전체 지상파방송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KBS는 양궁, 태권도, 축구 MBC는 유도, 야구, 핸드볼 SBS는 역도, 수영, 체조 등 올림픽 종목을 방송사 채널 이미지와 위상에 맞도록 배분하고 각 채널별 전문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채널별로 특정 분야의 스포츠 종목 전문 중계방송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더러 스포츠 종목에 있어 지상파방송 채널 전문화는 시청률을 채널별로 나눠서 확보하기보다는 한 채널이 전체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송사로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스포츠종목 채널전문화가 KP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편적 시청권에서 경기선정과 함께 권고사항에 공/민영방송 형태에 따라 경기(종목)별 권고하는 방식으로 순차편성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역시 규제기관이 관여하기보다는 KP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만약 앞서 지적한 대로 지상파방송이 스포츠 중계방송 채널전문화를 시도한다면 자연스럽게 중복투자 대신 협업의 체제를 구축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P 내에서 일부 합의로 협업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미미한 실적이고 올림픽 개최기간 지상파방송사들은 동일한 형태의 제작진/취재진을 개별적으로 파견하는 등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획일적인 중계방송과 중복편성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

획일적 중계방송 시스템에서 벗어나 KP 내 KBS, MBC, SBS 채널별로 방송사 이미지와 정체성에 맞는 종목을 배분하여 제작/취재/편성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중복편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중복투자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동반하락보다는 분산투자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호·조성식(2003).『스포츠산업을 말한다2 : 스포츠 미디어』,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원제(2005).『미디어스포츠사회학』,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태훈(2006).「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따른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규장(2006).「국내 지상파TV 방송의 편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 : 정치, 제도 및 규제, 경쟁, 조직 요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보현(2008). 2006년 지상파 TV 스포츠 중계방송 프로그램 편성 분석,『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6), 204~212.

방송위원회(2004). 지상파방송 3사 2004 아테네올림픽 편성현황 분석, 방송위원회 평가분석부.

류지철(2005).「채널 이미지 및 진행자 선호도와 채널 선택과의 상관관계 연구 : 2004 아테네 올림픽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우(1986). 공영방송과 스포츠 편성,「방송연구」, 여름호.

송해룡·김원제(2005).「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송해룡·김원제(2006a). '글로벌 이벤트의 로컬화, 금메달에만 관심',『신문과 방송』, 2006년 4월호, 86~92.

송해룡·김원제(2006b).「스포츠중계권 분쟁 해소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지정연구 2006-17. 방송위원회.

송해룡·최동철(1999).『미디어 스포츠와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심석대(2007).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소고,「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257~288.

안정임·송현경·전경란(1992). 공민영 방송제도 이후의 TV중복편성 현황분석,『방송연구』, 겨울호, 321~354.

유세경(2006).『방송학 원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윤병건(2005).『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스포츠』, 서울 : 한울.

원영신(2004).『스포츠 사회학 플러스』, 서울 : 대경북스.

이관열(1992). '비중복편성원칙 무너져, 중계방식과 진행자의 비전문성 개선돼야',『신문과 방송』, 1992년 9월호, 51~55.

정용준(2006). 지상파사업자의 스포츠중계권 분쟁과 대안 모색. 문화연대 '누구를 위하여 스포츠는 중계되는가?'(2006. 9. 14.) 주제발표집.

정철의(2002). '스포츠와 방송의 공생적 관계와 편성전략', 2002년 한국방송협회 산학세미나 "방송과 스포츠" 세미나발제문.

조성식·박영옥(2001).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편성과 편성 요인.『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14(2), 539~554.

최경진(2004). '공동중계나 분업으로 중복편성 피해야',『신문과 방송』, 2004년 10월호, 46~49.

한지석(2000).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시청률 분석",「광고정보」, 195호, 36~42.

한진만 외(2006).『디지털 시대의 방송편성론』, 서울 : 나남.

Aktin, W. & Litman, B.(1986). Network TV Programming : Economics, audiences, and the Rating Games, Journal of communication, 36(3), 32~50.

Ayres, C.(2006, Apr. 16). While all America switches on the TV, Hollywood turns to its basest instincts. *The London Times*, p. 17.

Eellamy, R.V. (1998). The Evolving Television Sports Marketplace, In Wenner, R.(1998). *Mediasport.* Routledge.

Breith, C.(2002). Die Fernsehschutzliste : Übertragung von Grossereingnissen nach 5a RfstV, Frankfurt am Main.

Hiestand, M. (2006, Jan. 18). NBC aiming for Olympic viewers to stay tuned. USA Today, p. 2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ee(1990). *Media Guide*, Lausanne : Author.

Schement, J.(1995). Beyond Universal Service : Characteristic of American without Telephone 1980-1993. *Telecommunication Policy*,

19(6), 477~485.

Whannel, G. (1984). The television spectacular. In A. Tomlinson and G. Whannel(eds), *Five Ring Circus : Money, Power, and Politics at the Olympic Games*(pp. 30~43). London : Pluto Press.

Whannel, G. (1992). *Fields in Vision : Television Sport and Cultural Transformation.* London : Routledge.

Wenner, R.(1989). Media, Sports, and Society. 송해룡 역(2007),『미디어, 스포츠 그리고 사회』,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Wenner, R.(1998). *Mediasport.* 송해룡 역(2004),『미디어스포츠』,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谷口源太郎(2006). 올림픽 방송중계권의 상업화, In Media Research Institute(2006), 新スポーツ放送權ビジネス最前線. 안창현 역(2006),『디지털방송과 스포츠중계』,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中村美子(2006). 유럽에서 스포츠방송과 보편적 접근권, In Media Research Institute(2006), 新スポーツ放送權ビジネス最前線. 안창현 역(2006),『디지털방송과 스포츠중계』,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隅井孝雄(2006). 미국에서 스포츠의 상업화와 방송중계권, In Media Research Institute(2006), 新スポーツ放送權ビジネス最前線. 안창현 역(2006),『디지털방송과 스포츠중계』,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8-19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 분석

발 행 일 2008년 12월 (비매품)

발 행 인 **최 시 중**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처 (주) 서 등